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도시및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논문

#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 진화 연구

- 서울대와 관악구를 중심으로 -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

유 문 영

#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 진화 연구

- 서울대와 관악구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전 상 인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

유 문 영

유문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백 인 권 \_\_\_\_\_ (인)

위 원 김근성 \_\_\_\_\_ (인)

## 국문초록

대학은 도시 및 지역사회의 기능과 형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의 유형은 산학협력, 캠퍼스확장, 도시재생, 시설 개방, 교육-인적자원 공유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특정한 관계 유형에 대해 집중하기 때문에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의 시대별 진화과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실증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시대적 배경과 특징이 어떻게 대학의 역할에 영향을 끼쳤으며, 변화된 대학의 역할 아래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어떠한 서비스와 자원을 주고받아 관계를 형성하고 연대적 이익추구를 위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대적인 대학 역할의 변화에 따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진화해 왔다고 보고 서울대학교와 관악구를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 관계의 진화과정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들을 파악하여 대학-지역사회 관계 진화과정으로부터 도시계획적 함의를 도출한다. 우선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에 관한 역사를 이해하고 대학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석틀을 정한다. 이후 서울대와 관악구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 진화의 도시계획적 함의를 찾는다.

분석적 범위로는 기존 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을 크게 시대에 따라 70년대 이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교육, 연구, 봉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대학, 1990년대 중반을 산학협력과 지식 교류에 치중하는 기업가적 대학, 2000년대 이

후를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변혁적 대학으로 나왔다. 시대별 대학의 역할 변화에 맞춰 변화하는 서울대와 관악구의 관계를 공간적, 비공간적 관계 두 가지로 분류했으며 공간적 관계의 경우 캠퍼스 내부와 외부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서울대와 관악구의 관계 진화의 도시계획적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197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도시환경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와의 공간적 관계를 형성하였다. 둘째, 서울대와 관악구는 공간적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셋째, 협력이 강조될수록 대학의 주체는 학생에서 대학본부로, 지역사회는 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옮겨갔으며 서울대-관악구의 협력관계는 정부 차원의 유도정책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근래의 협력관계는 창업이나 벤처에 치중되어 있으며 문화교류를 위한 장기적인 협력이 부족하여 도시재생 방향성 다양화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서울대의 경우 오히려 전통적 대학의 역할일 당시가 지금의 변혁적 대학이 추구하는 협력유형의 특징을 갖는다.

주요어 : 대학, 지역사회, 서울대, 관악구, 협력, 관계진화

학 번 : 2019-26145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
<b>II. 역사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 분석틀</b> .....	<b>8</b>
1.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의 역사 .....	8
2. 대학의 사회적 역할 및 유형화 .....	11
3. 유관 선행연구 검토 .....	20
4. 분석틀 .....	23
<b>III. 서울대학교와 관악구 개요 및 현황</b> .....	<b>28</b>
1. 서울대학교 .....	28
2. 서울특별시 관악구 .....	30
<b>IV. 서울대-관악구 관계 진화</b> .....	<b>33</b>
1. “전통적” 대학(1975년 ~ 1990년대) .....	33
1) 시대적 배경 .....	33

2) 대학의 전통적 역할 .....	35
3) 대학의 지역 내 비공식 진출 .....	38
4) “사회봉사”의 시대 .....	46
2. “기업가적” 대학(1990년대) .....	50
1) 시대적 배경 .....	50
2) 대학의 기업가적 역할 .....	51
3) 대학과 지역의 공간적 갈등 .....	52
4) “지역운동”의 전개 .....	58
3. “변혁적” 대학(2000년대 ~ 현재) .....	64
1) 시대적 배경 .....	64
2) 대학의 변혁적 역할 .....	66
3) 대학과 지역의 공간적 협력 .....	67
4) “동반성장”의 시동 .....	81
<b>V. 결론 .....</b>	<b>87</b>
1. 협력관계 진화과정 내용 요약 .....	87
2. 도시계획적 함의 .....	90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	94
<b>■ 참고문헌 .....</b>	<b>96</b>

## 표 차례

[표 2-1] 기업가적 대학과 변혁적 대학의 특징 .....	18
[표 2-2] 대학-지역사회의 관계 유형 연구 .....	23
[표 2-3] 대학의 물리적 확장에 따른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관계 확장 단계 .....	24
[표 4-1] 1980-1989 연구소신설 과정 .....	37
[표 4-2] 관악캠퍼스 건립연도 현황- 1992년까지 .....	39
[표 4-3] 관악캠퍼스 건립연도 현황- 2007년까지 .....	52
[표 4-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단계별 갈등내용 .....	59
[표 4-5] 관악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서울대 학관협력사업 내용 .....	68
[표 4-6] 단과대학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	84
[표 5-1] 서울대학교의 역할 변화와 대학-지역사회의 협력관계 진화 .....	89

## 그 래 프 차 례

[그래프 4-1] 학부 모집인원 추이(1980~1988) .....	40
---------------------------------------	----

## 사 진 차 례

[사진 4-1] 1975년 1월 1일 관악캠퍼스 .....	36
[사진 4-2] 1984년 아크로폴리스 광장 .....	41
[사진 4-3] 1993년 5월 10일 녹두거리 책방, 그날이 오면 .....	45
[사진 4-4] 야학현장 이미지와 포스터 .....	48
[사진 4-5] 다른 각도에서 보는 공대 301동 .....	55



## 그 립 차 례

[그림 1-1] 키워드와 자료 출처 .....	6
[그림 2-1] 대학 모델의 진화 .....	11
[그림 2-2] 대학 패러다임 .....	16
[그림 2-3] 대학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학 역할의 변화 .....	19
[그림 2-4]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 개념 .....	25
[그림 2-5] 대학-지역사회 협력관계 진화과정 분석틀 .....	26
[그림 3-1] 서울대학교 멀티캠퍼스 위치 .....	29
[그림 3-2] 관악구 위치 .....	31
[그림 4-1] 관악캠퍼스 건축현황 1972년부터 1991년까지 .....	39
[그림 4-2]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녹두거리 위치 .....	43
[그림 4-3] 관악캠퍼스 건축현황 1991부터 2011까지 .....	53
[그림 4-4] 공학관 확충 부지 .....	54
[그림 4-5] 희비의 쌍곡선 녹두거리 .....	57
[그림 4-6] 문화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개방 .....	69
[그림 4-7]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 이미지 .....	69
[그림 4-8] 강감찬 텃밭 위치 .....	70
[그림 4-9] 캠퍼스타운 현황 .....	76
[그림 4-10] 녹두.zip 위치 (신림로 117) .....	78
[그림 4-11] 서울대 OSCAR 캠퍼스타운 사업 프로세스 .....	79
[그림 4-12] 관악구와 서울대의 협력체제 모형 .....	85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에서 기존에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주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했다. 지역사회에서 대학이란 일반 사람들의 삶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교육·연구 활동 중심의 학문집단이었으며, 대학의 입장에서 지역사회는 대학의 기본적인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특히 환경오염 문제, 치안 문제, 학생운동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대학 주변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면서 대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일반적 양상으로 형성되었다(박영한 외, 2005). 한국에서는 90년대 말에 들어와서야 대학이 “지역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사회조직”(안영진 1997)이라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봉사 기능과 공공성을 강조한 대학의 활동이 늘어났다(여혜진 2007).

대학교육제도가 한국보다 앞서 발달한 서구의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학술적인 연구주제로서 오랫동안 존재했다. 도시계획 학술지인 *Town Planning Review*와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해 지속해서 다루고 있다.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커뮤니티 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접근방식이 강조되어왔고(Perry and Wiewel et. al. 2015),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이 계속해서 부각 된다.

교육부는 2019년 8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과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통하여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를 언

급하며 대학이 혁신적인 주체로 지역혁신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중시하는 도시재생 및 지역혁신의 과정에도 대학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김태현 외. 2016), 대학은 도시 및 지역사회의 기능과 형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전병혜 2019).

한국의 경우에는 건축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2000년대 이후의 관계에 집중되어있다. 캠퍼스계획이나 캠퍼스의 확장에 관한 연구(박훈 2015), 대학캠퍼스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해외 대학과 한국 대학의 캠퍼스계획 사례비교 연구(여혜진 2006) 등이 존재하며,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에 관련된 연구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외국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 사례(이태희 외. 2016), 대학-지역사회 협력과 상생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양정윤 외. 2009; 전병혜 2019)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오늘날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은 양자가 시대변화에 대응한 상생방안이라는 점(안영진 2005)을 인정하면서도 시대적, 사회적 특성에 대응한 대학의 역할 변화가 대학-지역사회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역할이 진화하면서 각 역할의 단계별로 지역사회와 대학의 관계와 협력의 형태, 협력의 주체가 실제로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대학의 역할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서울대와 관악구는 어떠한 관계의 변화를 거쳐왔는지를 파악하며 서울대와 관악구의 관계진화의 도시계획적 함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으로서 대학 종합화 이후 국가정책에 의해 관악구로 이전한 특수한 사례이다. 또한, 현재 서울대는 2007-2025 장기발

전계획의 목표로서 다면적 융합대학(Multiversity)<sup>1)</sup>으로 성장하는 장기적 비전을, 관악구는 야심 차게 계획하고 있는 낙성 벤처밸리나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대학캠퍼스 형성 때부터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진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서울대가 관악구로 이전했던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학 역할의 패러다임이 바뀔에 따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와의 협력적인 관계는 왜,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진화를 들여다보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진화가 도시 계획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집중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대학-지역사회 협력관계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도시문제를 공유하는 오늘날에는 더욱 대학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 2. 연구 내용

###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에 관한 역사

대학과 도시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통해 도시에서 대학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본다. 도시 속 대학의 형성 과정과 도시와 대

---

1) 다면적 융합대학은 글로벌화와 다원화의 추세에 놓인 자율적 사회 조직들과 인재들을 긴밀한 지식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지식생산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조직을 일컫는다(김동일 외, 2007). 21세기형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글로벌 리더십 캠퍼스’ 조성이 중점과제로 영어캠퍼스, 거주대학, 대규모 연구공원, 국제교육원 등을 포괄하는 미래형 캠퍼스이다(서울대학교 70년사).

학의 관계를 이해하고 대학이 무엇을 위해 존재해왔는지, 대학은 어떻게 형성되어 성장해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 **대학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고찰**

대학의 역할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시대적 배경에 따른 대학 역할의 진화를 이해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들과 협력관계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하고 연구의 분석적 틀을 구상한다.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서울대와 관악구의 협력관계 사례를 범주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패턴을 설계하도록 한다.

### **서울대와 관악구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

우선 각 대학 역할 패러다임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와 서울대학교가 나타내는 역할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시대별로 변화해 온 대학의 역할에 따라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의 협력관계를 설계된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한다. 서울대와 관악구의 협력관계와 연관된 사건, 사업, 업무협약, 정책 등을 들여다보고 대학의 역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대학-지역사회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학과 지역사회가 가지는 협력관계의 진화가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하고 현재 서울대와 관악구의 협력관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분석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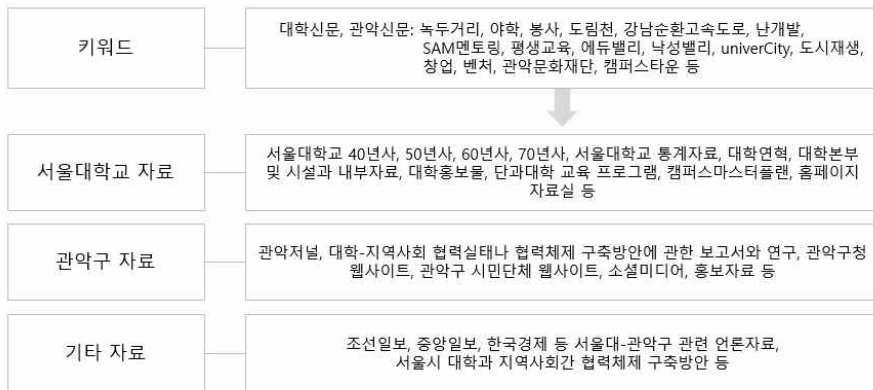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에 대한 범위를 다양한 구성원들의 집합체로 본다. 대학의 정의는 단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정의를 포함하며, '지혜, 지식, 기술, 예술, 테크놀로지'(한광야 2017)를 상상하고 개발하는 지식인 커뮤니티의 활동과 그 물리적인 환경을 포괄한다. 대학시설이 집적된 공간을 캠퍼스(campus)라고 일컬으며,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물리적 범위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로 지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사회'란 인간관계에 의해 또는 지리적, 행정적 분할 때문에 나누어 지역사회라는 공동 운명체를 말한다. Chatterman과 Goddard(2005)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이 말하는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의 범위는 다양하며, 대학은 이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지역의 산업이나 지역연구 파트너와 상호작용을 하거나 지역사회 지원 활동 시설을 제안하는 것 모두 대학과 지역의 관계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지역사회는 행정구역 중심의 지역 주민, 지방자치체, 산업 등을 포함하며, 지리적 범위는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가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지정한다.

한국교육개발원과 Goddard(1997, 2003)는 연구, 교육, 봉사라는 대학의 3대 전통적 기능에 따라 대학-지역 협력유형을 분류하였으나 대학과 지역의 연계는 연구, 교육, 봉사, 이 세 유형이 별도로 이뤄지기보다는 혼재(김동일 외. 2007)되어 단순히 연구, 교육, 봉사로 정의하기 어렵다. 실제 기존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들은 교육, 연구, 봉사 등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 그리고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등과 관련된 신자유주의 이

후의 대학의 역할, 그리고 도시재생, 재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주체로서의 대학 역할에 관련된 논문들이 주를 이룬다. 이에 본 논문은 대학의 역할 변화가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관계 진화에 밀접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각 시대의 대학의 역할에 따라 변화하는 대학-지역사회의 관계를 확인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 종합캠퍼스 설립 시기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와의 관계 형성과 협력관계의 진화과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 사례연구



[그림 1-1] 키워드와 자료 출처

본 논문은 서울대-관악구 관계진화라는 사례연구이며,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Punch 2005).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의 진화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악구에 서울대가 완전히 이전한 1975년 이후부터의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신문기사를 통한 문헌 조사를 기준으로 우선 대학신문과 관악신문에서 관악구 지역사회와 서울대의 관계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연도에 따라 구별하는 단계를 거친다. 대학신문의 경우 73년도부터(이전을

계획하고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신문기사 중 ‘관악구’, ‘지역사회’,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 관악신문의 경우 94년도(발행)부터 현재까지의 기사 중 ‘서울대학교’, ‘서울대’를 포함하는 기사나 서울대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나 협력을 언급하는 기사들을 추렸다. 이후 추려진 대학신문과 관악신문의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키워드를 분류했고 키워드는 [그림 1-1]과 같다.

서울대학교 50년사, 60년사, 70년사를 통해 키워드가 언급되는 연도의 특징과 배경을 정리한다. 또한, 관악캠퍼스의 본부, 각 단대 및 부속기관과 학생단체들이 관악구와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봉사, 대학-지역협력에 대한 보고서, 서울대학교와 지자체단체 홈페이지에 제시된 사업이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연혁정리, 비교와 대조, 분석을 통해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 Ⅱ. 역사적 고찰과 이론적 논의, 분석틀

### 1.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의 역사

오늘날의 대학교육 형태는 11세기 또는 12세기 중세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세기 유럽의 무역 중심의 경제체제가 부와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도시는 새로운 교육 체제와 새로운 지식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학을 뜻하는 University는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이나 조합을 가리키는 라틴어인 Universitas에서 왔으며 초창기의 대학은 학생과 교수 조합이 중심이었다. 파리의 경우 이방인인 학생들과 교수들의 이익을 위해 조합을 만들었고 그중 콜레주(college)라는 교수 조합이 후에 일종의 기숙 학교인 콜레주가 생기는 기반이 되었다(허준 2020). 대학교육이 특정한 시설을 갖춘 곳에서 일정하게 진행이 되면서 University는 오늘날 이해되는 대학을 가리키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김영희 2007;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2017).

13세기에 이르러 볼로냐와 파리 대학의 성공은 다른 주요 도시들에 퍼져서 1500년 기준으로 유럽의 대학은 76개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의 획일성과 보편성으로 인해 14세기 교황과 황제로부터 보장을 받았던 대학의 자치권과 상실되었고 곧 대학이 위치한 도시의 군주와 관료들의 관리에 놓이게 되었다. 16세기에 이르러서 절대왕정 아래 대학의 자율적인 지적 공동체의 역할은 막을 내렸다. 이후 자연 과학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관과 과학관은 기존 대학에서 거부되었기 때문에 대학이 아닌 아카데미와 전문학교에서 근대과학, 자연철학, 근대사, 공학 교육 등 실용적인 학문을 담당하며 새로운 지식 교류의 플랫폼으로 역할했다. 아카데미와 전문학교는 기존 대학이 채워주지 못하던 자연 과학에

대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켰고 대학은 점차 입지를 잃어갔다.

하지만, 대학의 역할은 독일에서 일차적으로 재탄생되었다고 이해된다(허준 2020, 김철 2006). 17, 18세기 독일 대학들은 변화하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자리를 잡았다. 과학 분야 지원과 지적 자유, 연구의 중요성 강조를 통해 대학은 국가의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 영국 또한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하면서 18,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에 크게 기여했다. 이처럼 대학들은 증가하는 과학기술 교육 수요에 대응했다. 미국의 경우 모릴(Morril) 법안<sup>2)</sup>을 통해 산업인력을 만들어내는 고등교육 기관이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대학의 역할을 명확하게 했으며, 법의 효력으로 일부 계층에만 한정되었던 고등교육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확대되었다(김철 2006: 38). 이에 따라 대학은 기존의 엘리트단계에서 벗어났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냉전시대 이래 교육과 연구 외에 사회봉사나 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대학의 주요 기능으로 삼기 시작했다(안영진 2005). 이때는 대학연구의 실용적 가치와 응용에 관한 관심이 증가 되었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역할은 사회에서 점점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 대두되었고 산학협력, 기업-대학-정부의 관계 발전을 통해 진행되었다. 대학은 외부의 기대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과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부터 이윤을 추구하는 대응(안영진 2005)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기존 산업인력을 양산하는 역할에서 대학은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은 하는 곳으로 변하였고 국가 사이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대학의 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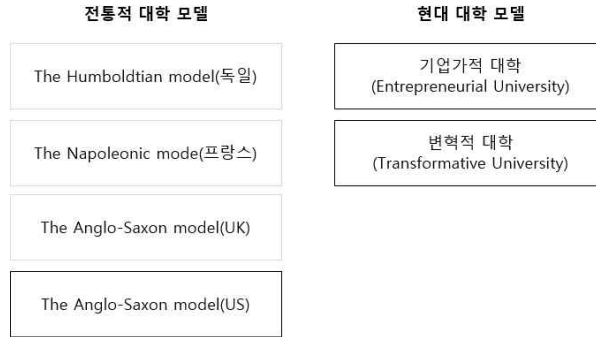
2) 각 주는 연방정부로부터 120km<sup>2</sup>의 연방정부 토지를 불하받아 토지를 이용한 이익을 통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만들었다(허준 2020).

할은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와 사회봉사 등으로 번졌다(민철구 외, 2003).

실제 미국의 경우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점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도시계획 및 공공정책 과정에 시민참여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하지만 이전에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한 요인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적 지원이었다(여혜진 2006; 12).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1932년)은 연방정부-대학-지역사회 간 파트너십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쟁점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후 1940년대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연방정부-지역사회정부 파트너십이 확장되어 대학 및 비영리단체를 포함하여 계획과정의 이해당사자가 재구성되었다. 1998년, 유네스코에 의해서 발표된 'Framework for priority action for change and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에 따르면 사회의 각 분야와 고등교육은 혁신적인 협력계획을 통해서 지역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대학 역할의 확장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대학과 도시의 협력적 상생을 도모하는 사회적 배경은 도시와 대학의 위기의식 공유가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했고 IMF를 기점으로 산업화 시대의 고도성장은 청년실업, 비정규직, 중산층 붕괴, 양극화, 저출산 등으로 지역사회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도시의 활력 상실은 대학에도 전이되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으로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지식의 원산지인 대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박대준미래전략연구소 2015), 지난 1990년대 초부터 도시와 대학의 행정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대학의 존재 가치를 실감하며 대학을 중심으로 도시와 지역사회를 재구성해왔다(한광야 2017).

## 2. 대학의 사회적 역할 및 유형화



[그림 2-1] 대학 모델의 진화  
(출처: 이정재 외. 2005 연구 재구성)

기존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전통적 대학 모델’과 ‘현대 대학 모델’로 나뉜다([그림 2-1] 참고). 전통적 대학 모델 중 The Humboldtian model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발전하게 된 대학의 모델로서 연구중심, The Napoleonic model은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었고 The Anglo-Saxon model(UK)은 교양교육을 통한 인격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미국 모델의 경우 유럽모델을 바탕으로 하되(연구, 교육) 대학의 기능을 사회봉사까지 확장했다(이정재 2015). 현대 대학 모델의 경우에는 크게 기업가적 대학과 변혁적 대학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 시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크게 3단계로 정리하고자 한다. 가장 기본적인 대학의 역할인 교육, 연구, 봉사를 수행하는 전통적 대학에 대한 논의에서 산업화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경제적인 역할이 강조되는 기업가적 대학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이후 지역재생과 혁신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강조되는 변혁적 대학에 대한 논의로 나뉜다.

## 전통적 대학

현재 일반적으로 전통적 대학의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로 정의되며 3가지 기능은 대학의 전근대 대학(Premodern University)에서 근대 대학(Modern University)<sup>3)</sup>로 역사적 진화과정을 거쳐 확립되었다.

대학의 본질에 대한 정의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교육을 통한 개인 목적달성의 이념을 강조하는 소피스트<sup>4)</sup>와 이데아(Idea)를 강조하는 플라톤의 교육을 바탕으로 진리탐구와 교육의 실용성을 강조했다(김철 2006). 중세시대에 들어와서는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내세주의, 평등주의, 인간주의가 교육이 되었다. 이 당시 대학은 진보와 교육적 이상의 추구하고 전문직을 얻기 위한 훈련장소로서(김철 2006) 형성이 되었다.

중세시대에는 사회적 필요로 대학의 역할이 부여되기도 하였는데 당시 중세사회에 페스트와 같은 유행병으로 의학적 지식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대학에서 의학 연구의 필요성(한광야 2017, 김철 2006)을 일깨웠다. 또한, 중세 말기에는 볼로냐와 같은 도시에서 상업과 무역이 중심이 되면서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허준 2020)하면서 볼로냐, 파리대학 등이 중세 초기에 교육 대학으로서 자리 잡았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보다 인간 중심의 인문주의 사상을 추구하였으며 인문주의 교육을 통하여 교양을 갖춘 개인을 양성하는 것을 역할로 삼았다. 전통적으로 학문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하여 대학이 점차 제도화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

---

3) 전근대 대학(Premodern University)는 고대부터 19세기 초 근대 대학이 출현하기 이전을 뜻하며 근대 대학(Modern University)는 학생의 교육보다 연구가 강조되기 시작한 19세기 이후를 일컫는다(이정재 외, 2015).

4) 소피스트들은 교육이라는 활동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유용한 능력과 기술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인격체로서 인간이 자아의 실현을 꾀하는 일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이었다(김철 2006).

는 실용적인 교육으로 발전한 것이다.

17세기에는 형식적인 교육보다 “기능적인 국가의 기관“(김철 2006)으로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18세기에는 계몽주의 아래 대학 또한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되었고 이후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본주의 체제 아래 국가이익의 증대를 위한 인재양성에 집중했다. 미국에서는 독립 이후, 이민자의 증가와 서부 개척정신에 바탕을 둔 시민들의 교육이 필수가 되면서 대학 또한 보편적으로 확산하였다. 독일에서는 대학의 역할을 학문연구를 통한 창조성과 자유성을 강조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국가경쟁력이 강조되면서 대학의 역할은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았다. 미국에서 민주주의와 실용주의 아래 대학에게 사회적인 응용성을 강조하여 공과대학이 설립되는 데 기여를 했다(오성삼 2001). 또한, 모릴법(Morril Act)을 통해 연방정부의 토지를 주립대학 설립을 위해 사용허가 했으며, 땅을 개척하는 동시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고등교육의 기회는 확대되었으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적,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봉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대학은 긴 역사를 거쳐오면서 도시와 사회에서 교육, 연구, 봉사의 역할을 맡아왔으며 대학은 시대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수 있다(이정재 외, 2015).

한국의 현행 고등교육법 제 28조에 의하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한다. 시대에 따라 혹은 국가나 지역마다 대학의 역할은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학의 기초적이고 전통적인 역할인 교수(teaching)와 연구(research)는 유지되었다(신진영·이종호 2017). 이러한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은 소수의 지식인과 사회적 엘리트의 구성에서 시작되었으나 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 또한 대학의 역할로 인식된다(양승실, 이정민 2005). 이처럼 교육, 연구, 봉사로 이해되는 대학의 주된 기능은 대학의 기본적인 역할로서 기존 논문과 연구에서 공통으로 정의된다(김한곤 1993, 안영진 2005, 김이수 2016, 신진영·이종호 2017). 한국사회에서도 대학은 순수 학문탐구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여 오랫동안 그 위상을 유지해왔다(김은정 외. 2020).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고등교육을 담당하며,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는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다.

### 기업가적 대학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미국에서 대학들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의 등장은 기존 대학의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로서 창업 인큐베이팅, 기술이전, 산업체간의 상호작용 등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할이 강조되었다(Etzkowitz 2000). 기업가적 대학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Etzkowitz(2000)의 연구에서는 'Entrepreneurial paradigm'에서 'Entrepreneurial University'의 등장은 국제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의 연구에서 그는 '지식 기반(knowledge-based)' 혁신의 출현으로 인한 학문적 구조의 변화와 대학 내부에서 벌어지는 발전으로 인해 대학의 새로운 역할이 발현되었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당시, 이러한 변화는 대학의 'traditional integrity'(Pelikan, 1992)와

‘independent critic of society’(Krimsky, 1991)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기업가적 대학의 방향성이 방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광풍으로 인해 기업가적인 대학으로서의 진화는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기업가적 대학의 역할에서는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도 포함이 되는데, 이는 대학의 개념을 단순히 교육적 목적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신진영·이종호 2017). 또한, 대학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중요해지면서 미국의 대학의 경우 각종 교육 및 연구성과를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역량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동시에, 갖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특히, 단순히 지식인을 길러낸다는 개념에서 지식경제의 중심지로서 경제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기업가적 대학은 외부의 압력에 대한 수동적인 대응과 변화하는 환경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대학의 적극적인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홍성욱 외.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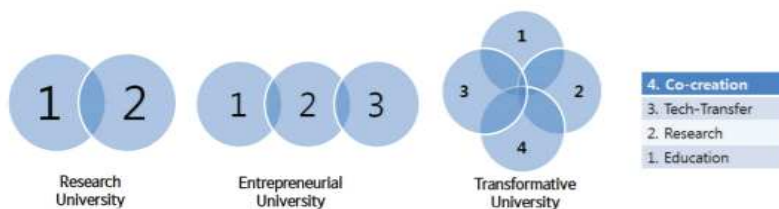
한국의 경우에 기업가적 대학에 관한 관점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보다 중앙정부와 사업체와의 연계가 강했다. 대학은 공공선의 역할보다 이익추구자의 역할에 더욱 관심(조영하 2010)을 두면서 이와 연계하여 대학은 기술특허나 인허가 지원사무소의 설치, 고등기술센터 및 창업센터의 확충, 산학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추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에 이르렀다(박영한 외. 2001). 대학은 연구비 확보를 위해 기업과 산학협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연구에서 실용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홍성욱 외. 2002). 특히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혁신기술의 창출이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산학협동 관련 법인 「기술이전촉진법」, 「벤처기업육성법」 등이 제정되었



다. 대학과 기업 간의 협력에 관한 연구는 정부의 주도로 진행된 산학협동에 관한 연구와 기술혁신체제 연구와 기술이전에 관한 연구 등이 존재한다.

김정인(2018)은 ‘대학과 권력’에서 한국의 경우, 이 시기의 대학은 시장 권력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를 꾀했으며 시장의 개입으로 대학은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을 양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대학의 존재 이유가 국가나 시장의 존재 이유와 같을 수 없음에도 세 영역은 모두 같은 것을 지향하고 주장하기에 이르러 시장의 부를 늘리고자 하는 국가와 사적인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과 더불어 ‘공공재인 대학마저 부를 좇는 경제조직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당시 대학의 역할에 관련된 한국의 연구들은 주로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등 대학-산업-정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처럼, 1990년대에 이르러 한국 대학의 역할은 기존의 교육, 연구, 봉사에 집중했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적 대학의 역할로 확장되어 기업, 국가, 민간 개발자와의 발전적 협력을 통해 포괄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 변혁적 대학



[그림 2-2] 대학 패러다임

(출처: Trencher, Yarime, McCormick, Doll, & Kraines(2014) p.18-19)

기업가적인 대학 이후 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1990년대 말부터 유럽에서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고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면서부터 시작했다.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보조금과 세금을 제공받고 있는 대학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위한 대응으로 ‘변혁적 대학(Transformative University)’(Guzmán-Valenzuela 2016)의 개념이 등장했다. 변혁적 대학의 개념은 단순히 대학의 기본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익이 되어야 하며, 공공 영역의 확장과 평등 사회 진흥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Guzmán-Valenzuela 2016). 즉, 대학은 단순히 교육, 연구, 봉사, 경제적 영향력을 창출하는 주체에서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분야에서의 중요한 혁신 동력으로도 간주 된다(Jongbloed 2008). 특히 교육분야에서 지속가능성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대학이 변혁적인 접근(transformative approach)을 통해서 대학은 국가나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이나 학자금 보조 등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공공 활동 참여가 강조되며, 사회와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신진영·이종호 2017, 박한규 2016).

대학은 이제 외부 전 분야에서 영향을 발휘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Goddard(2000)의 경우 기존 교수, 연구, 봉사의 역할(전통적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Perry(2005)의 경우 대학은 지역사회 정책과 과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사회나 지구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혜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가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파트너십(reciprocal partnership)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Thomas Nancy 2000).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인식, 공

동 목표와 아젠다 공유, 대학과 사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공의 기준과 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박한규 2016).

구분	기업가적 대학 (Entrepreneurial University)	변혁적 대학 (Transformative University)
기능	신기술 이전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 창조
목적	경제 발전에 기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적 변혁 창조
패러다임	시장 논리와 기업가 정신	지속가능성
협력유형	대학, 산업, 정부에서 관련 전문가	대학, 산업, 정부,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비전문가

[표 2-1] 기업가적 대학과 변혁적 대학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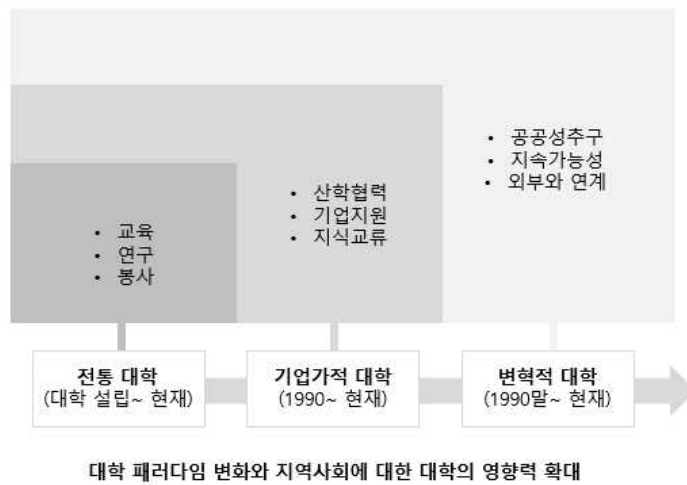
(참고: Trencher, Yarime, McCormick, Doll, & Kraines(2014). p. 8 & 이정재 외.(2015) p.13 재구성)

이처럼 대학의 패러다임이 변혁적 대학으로 진화하면서 ‘지역’이 부각 되었다(신진영, 이종호 2017). Goddard(2012)는 변혁적 대학의 개념으로 대학이 입지하는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협력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이처럼 기존의 대학의 역할은 학생을 교육하고 학술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범위가 캠퍼스 내에서 지역사회까지 확장되어 평생교육이나 지역사회 문화연구에도 주체가 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에 따라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도 도시재생, 지역문화 계승, 다문화 가정 지원, 생태환경 보전 등으로 그 영역 및 분야가 확대되어, 이를 통해 대학이 지역혁신에 있어 새로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장후은·이종호 2017).

최근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시안)」에서 대학의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은 대학의 위기이자 기회이므로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지자체와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대학혁신 지원방안의 정책 기조를 ‘혁신의 주체로 서는 대학,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지역과

정부'로 설정하고, 학령인구 감소 및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대학혁신지원을 위하여 지역대학과 지자체 중심의 지역혁신을 골자로 한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을 강조하면서, '(가칭)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계획을 수립·추진, 지역 내 대학별 기능 및 역할을 분담하여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한다고 발표 하였다.(교육부, 2019.08.14.)

대학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학의 역할 변화



[그림 2-3] 대학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학 역할의 변화  
(출처: 신진영·이중호 2017 연구 참조, 재구성)

결국, 이론적으로 대학은 봉사와 교육,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과 산학협력이나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나 산업과 협력하는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조화하는 변혁적 역할까지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의 범위가 넓어져 왔다. 본 연구는 대학 역할의 변화에 따

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어떻게 진화해 왔으며 도시계획적인 의의가 있는지 증명하고자 한다. 대학 역할의 진화에 따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는 캠퍼스 안팎으로 공간적, 비공간적 진화와 변화를 거처온 것을 구체적인 분석틀을 바탕으로 들여다본다.

### 3. 유관 선행연구 검토

대학은 순수 학문탐구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출발하여 오랫동안 그 위상을 유지해왔다. 오랜 시간 동안 고등교육을 담당하며,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 그리고 봉사는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다.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90년대 미국의 대학들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게 된 때도 이 당시이며, 대학의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형태로서 창업 인큐베이팅, 기술이전, 산업체간의 상호작용 등 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할이 강조되고(이종호·이철우, 2015; Etzkowitz, 2000).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A new set of regional actors’(Chatterton, Goddard, 2000)으로 역할한다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결국, 대학-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대학 역할의 확장이 요구될 때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대표적인 연구로는 Chatterton과 Goddard(2003)의 연구가 있다. 대학의 관점에서 지역의 요구와 필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 단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형성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의 경우, 도시 및 지역과 연계를 통해 지역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살피고 상호

협력체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다룬 안영진(2005)의 연구가 존재한다.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대학과 지역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지역 중심으로 학습과 혁신이 이뤄졌고, 그에 따라 대학은 지식전달 역할에서 실험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직업교육적 방향과 첨단과학 기술분야 집중하여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적인 협력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산학협력과 기술이전에 관한 연구는 Keane(1999)의 연구와 홍성욱(2002), 박영한(2001)의 연구에서 효율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방법과 대학의 연구 및 기술을 사회와 협력하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 범위를 대학캠퍼스로 지정하여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여혜진(2006)과 한광야(2005)의 연구도 존재한다. 한국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분석하여 확장방식과 계획활동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여혜진 2006) 미국 대학을 사례로 캠퍼스의 성장과 경계확장이 주변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한광야 2005)가 있다. 여혜진(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캠퍼스 확장을 통해 지역사회의 영역과 연계가 강해지면서 협력적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대학시설과 공간개방의 중요성, 유형과 그 효과를 언급하는 연구들 또한 존재한다. 김성부(2008)의 연구에서는 주민편의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이용현황을 통해 대학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고, 이세미·김동찬(2011)의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진행된 대학교들의 담장 녹화사업의 형태에 따른 이용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의 물리적인 시설 이외에 지식과 인적교류를 통한 지역사회와 대학의 연계에 대한 연구 중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 협력을 위한 발전적 모형을

제시하는 연구(윤정일 외, 2006)가 존재한다.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더 나아가 대학이 지역에서 창업, 관광, 역사, 인문사회,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했으며, 기존의 ‘일방적이고 수직적 관계’에서 ‘쌍방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변화를 통해 대학과 지역간의 협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도시재생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캠퍼스 타운 계획(오주석 외, 2014)과 해외의 도시재생 사례 중 대학-지역사회의 협력관계와 대학의 자원 사용에 대해 집중한 연구(이태희 외, 2016)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실현 방안과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 유형	출처	연구의 내용 및 목적
산학협력과 기술이전	Keane et al., 1999	대학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정보, 노하우 등을 해당 도시 및 지역의 산업체와 기관·단체에 제공토록 함으로써, 대학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중추 조직의 하나로 육성하는 방안 수립
	박영한 외, 2001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를 사례로 대학의 혁신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체계를 탐색
캠퍼스확장	여혜진 2006	한국과 미국의 대학 캠퍼스의 입지적 특성과 확장방식, 계획활동, 상호작용을 협력적 계획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여 상호작용의 다양성이 심화되는 추세를 들여보고 대학-지역사회 계획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제시
	한광야 외, 2005	대학캠퍼스의 성장과 경계확장에 관한 연구로서 캠퍼스의 공간성장을 통한 캠퍼스의 분산화 과정을 버클리 대학교를 사례로 분산화 과정의 목적, 타이밍, 방법간의 관계를 고찰
대학 시설과 공간 개방	김성부 외, 2008	주민편의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이용현황과 이용자의 만족도, 그리고 대학시설의 비용 원인을 종합 분석하여 지역 주민의 대학시설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
	이세미, 김동찬 201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대학교 담장개방 녹화사업 대상 학교들 중 담장개방이 시행된 24개의 대학교를 중심으로 담장개방 형태의 유형에 따른 이용만족도를 분석
지식-인적 교류	윤정일 외, 2006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대학과 지역사회간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지역혁신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위한 발전적 모형을 제시하고 세부적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목적

도시재생	오주석 외. 2014	지역사회 재생을 위한 캠퍼스타운 계획에 대한 연구로서 대학-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캠퍼스타운의 계획안을 제시
	이태희 외. 2016	일본 대학을 사례로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로서 대학이 가진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논의

[표 2-2] 대학-지역사회의 관계 유형 연구

기존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2000년대 이후 대학과 지역사회의 특정한 관계유형에 대해 집중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대학의 관계 진화과정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대적 상황에 의한 대학 역할의 진화에 따라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진화되었다고 보고 서울대학교와 관악구를 구체적인 사례로 삼아 관계의 진화과정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들을 알아보고 도시계획적 함의를 도출한다.

#### 4. 분석틀

앞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고찰과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의 유형은 산학협력, 캠퍼스 확장, 도시재생, 시설 개방, 교육-인적자원 공유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학의 역할 또한 변화해왔다. 2000년대 이후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확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했지만, 아직도 심층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대학-지역사회 관계의 진화과정에 대한 논의는 미미한 상태이다.

대학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학과 지역사



회의 협력을 강조하는 현시점에서는 대학 역할의 확장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관계 영역의 확장을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증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시대적 배경과 특징이 어떻게 대학의 역할에 영향을 끼쳤으며, 변화된 대학의 역할 아래 대학과 지역사회가 서로 어떠한 서비스와 자원을 주고받아 관계를 형성하고 연대적 이익추구를 위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의 역할을 교육, 연구, 봉사로 크게 나누고 전통적 대학에서 변혁적 대학으로 변화는 대학 패러다임의 과정에서 대학의 역할이 점점 공공성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보다 대학 역할의 변화에 따른 대학-지역사회의 관계적 관점에서 협력의 진화과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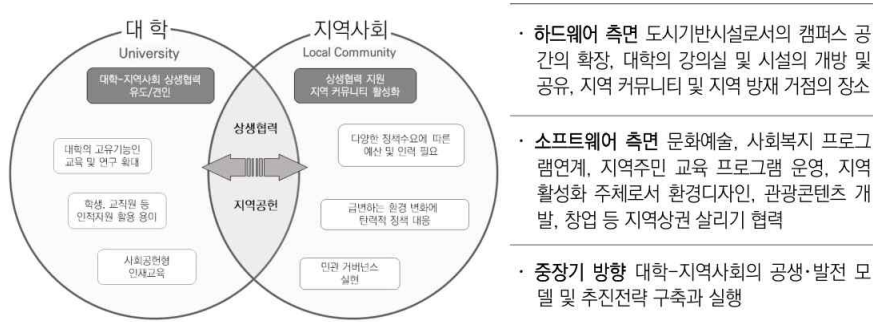
물리적 확장유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특징
캠퍼스- 내부충진	캠퍼스 부지를 확장하지 않고 기존의 캠퍼스 경계 안에서만 필요한 개발을 채워가는 유형
캠퍼스- 경계확장	캠퍼스의 연결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확장하는 방식
캠퍼스- 외곽확산	신캠퍼스 조성형 1. 메인 캠퍼스 주변 오픈캠퍼스 조성형 2. 제2캠퍼스 조성형
도시재개발	낙후된 지역 재개발과 캠퍼스 확장이라는 목적으로 캠퍼스 주변 지역의 전면 철거를 통한 환경 개선
지역사회 재활성화	대학-지역사회-경부가 협력해 수목재개발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환경개선, 지역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유형 1. 캠퍼스 확장시 건물용도의 다양화로 대학생-지역주민이 공유하는 시설 포함과 시설개발 2. 대학이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사회활성화사업/지역교육프로그램/공립학교 지원프로그램/봉사활동/캠퍼스 시설개발의 확대와 다양화 3. 대학 내 지역사회대응채널 체계화 4. 대학-지역사회 간 정기적인 포럼/중장기발전계획 혹은 마스터플랜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만들기	대학이 지역사회 만들기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여 지역사회-경부-대학-민간 등 참여하며, 대학과 지역의 협력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관계구조



[표 2-3] 대학의 물리적 확장에 따른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관계 확장 단계  
(출처: 여혜진, 김광중 2008 연구 참고 작성)

기존 대학-지역사회 상생과 협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

회의 관계를 크게 대학의 공간적 측면과 비공간적 측면을 통해 이해한다. 우선, 여혜진과 김광중(2008)의 연구와 여혜진, 김홍규, 이주일, 임업(2010)의 연구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대해서 대학의 물리적 확장유형과 비물리적 협력유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대학의 물리적 확장방식으로는 캠퍼스확장에 기초하는데, 미국대학의 경우 내부충진, 경계 확장, 외곽확산, 도시재개발, 지역사회 재활성화, 지역사회 만들기로 진화하며, 대학-지역사회 협력적 계획의 한국적 여건에 관한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우 크게 내부충진, 경계확장, 외곽확산으로 대학의 확장유형이 진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대학의 경우, 캠퍼스 내부의 건물개발에 집중하여 도시구조와는 독립적인 캠퍼스 형태를 유지했고(여혜진, 김광중 2008), 이러한 형태는 비교적 시가지와 근접하게 있는 미국의 도시형 캠퍼스와는 다른 물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진화해 왔다. 이처럼 여혜진과 김광중(2008)의 연구에서는 대학의 공간적 확장유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분류를 시도했으며 공간적 확장과 협력 이외의 협력관계를 비물리적 관계로 두 가지의 협력관계로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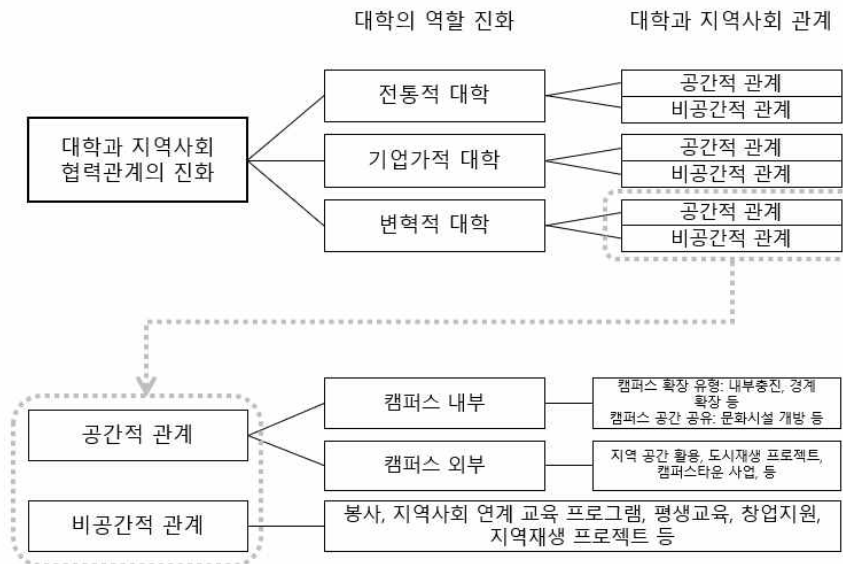
[그림 2-4]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 개념  
(출처: 전병혜 2019)

전병혜(2019)의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협력 가능성의 영향요인

및 구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들과 비슷하게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상생 협력 개념을 구분했다. 하드웨어적 측면으로는 도시기반시설로서의 캠퍼스 공간의 확장, 대학 시설의 개방, 지역사회에 커뮤니티와 지역 방재 거점의 장소 제공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적 측면으로는 문화예술, 사회복지 프로그램 연계, 평생교육과 같은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광콘텐츠나 창업 등 지역상권 살리기 협력을 예로 들었다.

특히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들여다보기 위해 공간적 협력과 비공간적 협력관계로 대학-지역사회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간적 협력에 대해서는 캠퍼스 공간에 집중(여혜진·김광중 2008)되어 있으며 한국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캠퍼스 외 지역에서 발생했던 특수한

### 대학-지역사회 협력관계 분석틀



[그림 2-5] 대학-지역사회 협력관계 진화과정 분석틀

공간적 협력관계에 대한 이해는 생략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림 2-5>와 같이 대학의 역할과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의 진화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여혜진·김광중 2008, 전병혜 2019)에서 시도했던 물리적(하드웨어적) 협력과 비물리적(소프트웨어적) 협력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협력과 비공간적 협력으로 분석틀을 설정하며 시대적 배경과 대학 역할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관계과 비공간적 관계의 진화과정을 들여다본다.

### Ⅲ. 서울대와 관악구 개요 및 현황

#### 1. 서울대학교

해방 이후 한국의 대학 설립에 대해서 문교부와 미군정청 당국의 입장에서 일제 강점기의 유물이 기존의 교육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기에 국가의 학계를 대표할만한 ‘거대한 종합대학’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46년 8월 22일 법령 제102호,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였다. 서울대학교는 1946년, 민족교육의 가치 아래 민족 최고 지성의 전당이며, 민족 문화 창달과 세계문화 창조를 위한 학문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의 국립종합대학교로 설립이 되었다(윤정일 외, 2006).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공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학생 징집,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서울의 캠퍼스와 시설을 잃었으며, 이는 단과대학들의 분립적 성향이 감소되고 대학본부가 서울대의 중심기관으로서 대학운영을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재건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는 상태<sup>5)</sup>였고 이 당시 제5대 최규남 총장이 해외 원조기구와 접촉하여 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통해 미네소타 프로젝트(Minnesota Project)를 실현했다. 서울대학교와 미국 대외활동본부(FOA)는 1953년 원조 협정을 체결했고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교가 계획의 실행을 맡았다. 1955년부터 1958년 7월 31일까지 지원된 총 545만 1000달러 통해 공업·농업·의학 부문의 발전을 이뤘으며, 이는 1960~1970년대 공업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후 한미합동경제위원회(OEC)의 주재로 1961년까지 연장

---

5) 국방부 예산이 증액되면서 문교부 예산은 축소 조정되었고 11.4%를 차지하던 문교부 예산은 지속적으로 급감하여 1953년 2.6%를 기록하였다.

되어 추가로 지원을 받았다.

1970년대 중반에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두드러졌다. 이때 당시에 서울대학교는 연립대학으로서 단과대학 사이에 공유기반이 빈약하였고 공간적인 분산 배치는 학술교류나 합동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963년 지금의 관악구 지역(당시 영등포구)이 서울시로 편입된 이후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관악구에는 철거민 집단이 이주하여 정착단지가 조성되었다. 당시에 계획보다 철거민들의 규모가 커지자 산기슭과 강가에 불량주택이 생겨났고 1970년 신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던 1975년부터 서울대학교는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시작했다.



[그림 3-1] 서울대학교 멀티캠퍼스 위치(출처: 네이버지도 바탕으로 작성)

관악구 캠퍼스는 현재 서울시 관악구에 총 부지면적 4,109,000㎡를 이루며 관악산 일대의 산지와 버들골 등지의 녹지가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2019년 기준 223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연면적의 경우 총

1,333,541㎡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별 면적비율을 따져보면 교육기본시설이 44%, 그다음은 연구시설(27%), 기타시설(9%) 등 차지하고 있다. 총 15개의 단과대학, 1개의 일반대학원, 11개의 전문대학원을 보유하고 있다. 관악캠퍼스의 경우 2016년 기준 관악캠퍼스의 학생정원은 22,126이며, 학생 수와 전임교직원 수를 합한 순수 상주인구는 약 24,300명 정도이다. 현재 관악캠퍼스는 과밀화에 따른 연구시설 확충이 어려워 새로운 공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며, 단과대학과 대학원이 신축 및 리모델링을 주도하는 방식의 캠퍼스 개발 방식 때문에 난개발을 겪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연건캠퍼스, 관악캠퍼스, 평창캠퍼스로 이뤄져 있으며, 시흥캠퍼스(2025년 예정)가 건립 중이다.

## 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관악구가 조선 시대에는 시흥군 동면지역과 과천군 하북면 일부였지만 종합개발을 위해 전면적인 개편이 되어 영등포구에 편입되었다. 이후 지방행정 구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73년 3월 12일 자 대통령령 제6548호로 같은 해 7월 1일, 관악구를 비롯한 동작구, 서초구 지역 일부를 영등포구에서 분리, 별도의 구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명명하였다.

1970년대 초 도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택지조성에 나서 서민주택난을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철거민들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신림동을 비롯한 관악구 일대에 이주시킨 철거민에 몇 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입되었고, 정부가 마련한 철거민 이주 정착단지 외에도 산기슭이나 하천변 등에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들어섰다. 1975년 2월 28일 동숭동에서 관악산 중턱으로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이전하면서 빈민촌이 아닌 대학 동네로 변모하였다.<sup>6)</sup>

관악구는 동작구, 서초구, 금천구, 영등포구와 인접하여 서울의 서남부에 있으며, 21개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한강 이남에 위치하며, 북쪽은 동작구, 동쪽은 서초구, 남쪽으로는 관악산과 경기도 과천과 안양, 서쪽으로는 금천구에 접해있다. 관악구의 전체 면적은 서울특별시 전체의 4.9%이며 총 29.56km<sup>2</sup>로 주거지역은 14.62km<sup>2</sup>(51.83%), 상업지역은 0.39km<sup>2</sup>(1.32%), 녹지지역은 13.85km<sup>2</sup>(46.85%)를 차지하고 있다. 관악구의 행정구역 중 대학동이 7.92km<sup>2</sup>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현동(3.27km<sup>2</sup>) 낙성대동 (1.83km<sup>2</sup>), 인현동 (1.53km<sup>2</sup>) 등의 순으로 관악구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3-2] 관악구 위치  
(지도 출처: Google earth 바탕으로 작성)

관악구는 2호선을 통한 서울의 주요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며 관악산, 낙성대, 강감찬, 서울대 등으로 대변되는 지역 특성이 있다. 주로 서울대, 낙성대, 봉천, 신림, 난곡 등 5개의 생활권으로 나뉘며 문화행정적 기능보다는 근린생활권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sup>7)</sup> 총인구수는 499,740명이며 가구는 총 273,715세대로 2015년부터 인구 하락세를 보인

6) 박물관기획진 ‘신림동 청춘’ 고시촌의 일상, 서울역사박물관.

7) 관악구\_지역상권활성화를\_위한\_연구용역-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7만여 명으로 2011년 대비 37%가 증가했다.

사업체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이 5,460개로 관악구 사업체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19.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종사자가 사업체 수 대비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것으로 보아 주로 서비스 업종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악구 내 축제로는 강감찬축제, 서울도시농업박람회, 평생학습축제, 관악책잔치 등이 존재한다. 관악구에는 박물관 2곳과 미술관 외 6곳이 위치하는데 이중 서울대박물관, 서울대 미술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모두 서울대에 위치한다.

## IV. 서울대-관악구 관계 진화

### 1. “전통적” 대학 (1975년 ~ 1990년대)

#### 1) 시대적 배경

한국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 이후 미국의 원조를 통해 근대화를 위한 교육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통해 진행했다. 1951년 5월 4일, 대학 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을 선포하여 전쟁 중이었지만 대학생 징집연기 조치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1950년대 중반부터는 전교생이 모이는 대규모 축제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집단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선진적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회 비판의식이 성장했으며 학생들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민족과 주체성에 관심을 두면서 4·19 이후 사회에서는 혁명의 주역인 대학생들의 위상이 높아졌다. 학도호국단<sup>8)</sup>이 해체되고 문교부는 대학과 재단 운영 개선을 위해 학원정상화방안을 내놓으며 행정당국의 지도 아래 하교별 사친회, 동창회, 교직원과 긴밀한 협조로 분규를 수습했으며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 반영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나서서 학원 민주화 운동을 지원할 정도로 학생들은 혁명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1950년대 당시 대학생들이 혁명의 주역으로 떠올랐으나 1960년대부터 국가가 본격적으로 고등교육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근대화에 필요한 고급 인력양성을 위해서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었으며 재정지원을 대가로 대학의 방향성과 운영에 자율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기존 사학세

---

8) 학도호국단은 1949년 9월 문교부의 주도 아래 시행되었으며 반공사상교육을 실시해 조직적 활동을 통해 민족의식과 국가관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자치훈련단체였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력이 국가관리 체제로 흡수가 되었으며 대학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가가 요구하는 책무를 이행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위축되는 현상을 낳았다. 혁명의 주역이었던 대학생들은 학문은 국가의 생존 수단이 아니며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의 재정지원 압박을 받는 타율적 근대화가 이뤄졌으며 국가는 면학 분위기 조성을 이유로 학생운동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시작했다. 1979년에는 24개의 종합대학이 실험대학<sup>9)</sup>으로 지정되면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대학을 골라 사회적, 실용적 분야의 전문인 양성에 역점을 두고 인력 수급을 목적으로 대학을 개혁하고자 했다.

1979년 10월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교수와 학생이 나서서 학원 민주화를 추진하며 학생들은 과 단위로 학생운동과, 농촌활동 추진, 야학 추진, 혹은 공장에 들어가 직접 노동을 하면서 학원자율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운동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했다. 하지만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대학 민주화와 자율화 갈등이 고조되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과 기관평가를 통해 학문 영역을 평가했다.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졸업정원제를 포함한 고등교육정책은 대학 대중화의 길을 열었는데, 1980년을 기점으로 고등교육 인구가 57만 명에서 10년 뒤 1990년에 149만 명으로 늘었고 서울대 재학생 수도 1975년 1만 6,146명에서 1985년 3만 356명으로 10년 사이 두 배가 늘었다(김정인 2018).

---

9) 실험대학은 대학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1973년부터 문교부의 주도 아래 교육과 연구과정에서의 개혁을 시도한 시범대학을 일컫는다(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특히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춰 국토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해 국가 발전과 관련된 학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김정인 2018).

## 2) 대학의 전통적 역할

1975년부터 1990년대 초반 당시 서울대학교는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인 교육과 연구 수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는 기존 10개의 고등교육기관을 흡수하여 물리과대학, 사범대학, 법과대학, 상과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농림과대학 등 9개 단과대학으로 편성하고 그 위에 대학원을 두었다. 관악구로 이주한 1975년 이전 서울대학교의 한계는 연립대학의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이었다.<sup>10)</sup> 1960년대 중반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이 두드러졌지만,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 사이에 공유기반의 없었으며 일상적인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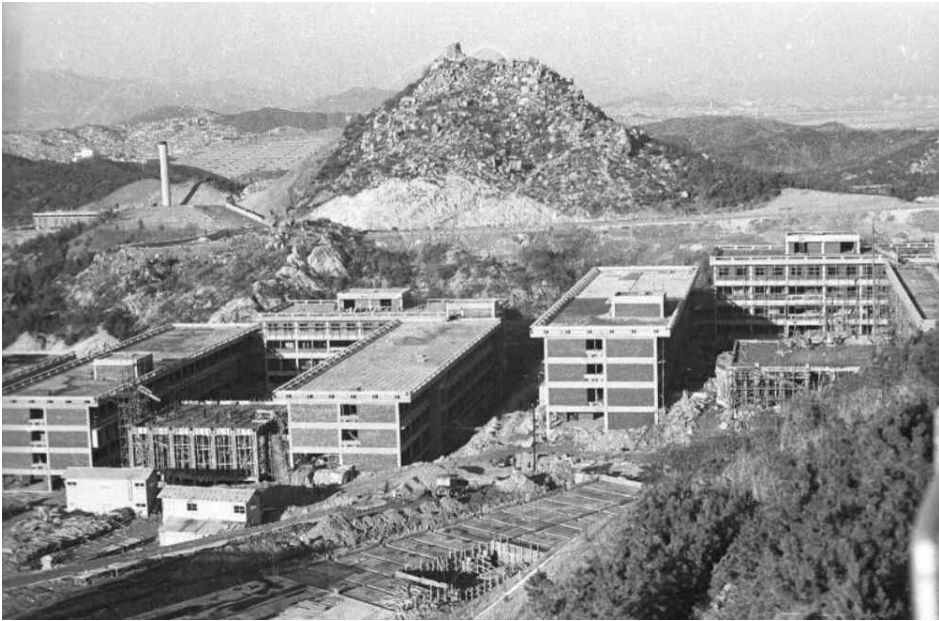
단과대학 사이 학술교류의 부재를 해결하고자 1960년부터 논의되어 온 서울대 종합캠퍼스에 대한 계획은 1970년 3월 서울대의 종합캠퍼스부지가 관악산 일대로 확정 발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1971년 4월 관악산 종합캠퍼스 기공이 시작되었고 본래 1974년에 1단계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문교부가 1974년 1월 17일 교사내부시설과 도서관, 학생회관, 교수와 직원 주택 등 부속시설이 완비되지 않아 캠퍼스 이전을 1년 뒤인 75년으로 연기했고<sup>11)</sup>, 1975년 3월 5일, 관악에서의 첫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1975년부터 단과대학들은 관악캠퍼스로 이전을 시작했다.

1974년 10월 14일 날 발간된 대학신문에는 개교 28주년 기념특집에 실린 ‘서울대학교론(서울大學校論)’이라는 제목의 글 본문에서, ‘한 나라

---

10) 1947년 개교 당시에도 대학본부의 직제는 3처 1국 9과로 조직되었고 3처는 학생처, 여학생처, 교무처, 1국은 사무국으로 아래에 아홉 개의 실무과가 포진하고 있었으며 각 단과대학의 행정기구는 각각의 사정에 따라 단과대학별로 다른 조직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서울대학교 개교 70년사, p.156).

11) 서울대 이전연기, 중앙일보, 1974.01.18. (<https://news.joins.com/article/1367190>)



[사진 4-1] 1975년 1월 1일 관악캠퍼스  
(출처: 서울대학교 개학신문사)

의 지성(知性)과 양심(良心)과 지식(知識)은 언제나 아카데미에 달려있다. 아카데미의 건전한 발전은 그 나라의 지적(知的) 풍토(風土)가 메마르고 병들 때 그 민족(民族)의 정신(情神) 바로 그것이 병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이 당시 서울대가 교육적 역할의 강화에 집중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며 교육과 연구의 질에 대한 저하를 우려하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 단절 없이 '활발하고 건전한 탐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서울대학교는 교육, 연구, 봉사의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 중 한국의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적 역할에 치중했다. 국가·사회적 요구 때문에 서울대는 관악구로 이주하면서 한국의 중화학 공업정책을 뒷받침하고 과학기술을 이끌어 나갈 고급 인력양성과 교육에 중심을 두었다.

1977년에 서울대학교가 발표한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 계획의 이

념과 목표’에서도 계속해서 대학의 근본적인 역할이었던 교육과 연구중심의 역할을 가장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서울대학교 발전 10개년 계획의 이념과 목표’에서는 3가지의 이념,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을 지정하였으며, 서울대는 ‘학사과정 중심대학에서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을 강조하였다. 이때 당시 서울대는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학부 교육과 기초 교육을 더욱 강화했다. 경제성장으로 한국 사회에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를 통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년도	날짜	1980년대 연구소 신설
1980	4.4	환경계획연구소 (환경대학원), 치학연구소 (치대)신설
1981	2.28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설치
1985	3.25	반도체공동연구소 설립
	7.5	유전공학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설
1986	12.24	한국정치연구소 및 해양연구소 신설
1987	4.16	연구처 신설
1988	6.17	신소재공동연구소 신설
1989	3.11	통계연구소, 노사관계연구소, 서양음악연구소 신설
	7.3	정밀기계공동연구소, 불어문화권연구소, 소련동구연구소, 스페인중남미연구국 신설
	10.5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 의공학연구소 신설

[표 4-1] 1980-1989 연구소신설 과정

1980년대까지도 대학원중심대학론을 바탕으로 학술연구 활동에 더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80년에 환경계획연구소, 치학연구소 신설, 81년에 자연과학종합연구소 설치, 경제연구소에서는 창립 20주년 기념 심포지움으로 ‘한국의 경제학연구의 발전과 과제’를 개최하고 자연

12) 서울대학교발전10개년계획은 1979년 발생한 10.26 사태로 시안으로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대학원중심대학론의 구체적인 모습은 갖추었고,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연구중심의 대학으로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보여준다(서울대학교 개교 70년사 p.59).

과학종합연구소에서는 기초과학연구논문발표회를 주최, 85년에는 유전공학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 신설, 86년에 한국정치연구소 및 해양연구소 신설, 87년에는 연구처를 신설했으며 연구진흥 및 연구지원업무에 박차를 가했다. 88년에는 생약연구소가 WHO 전통약물연구 협력 센터로 지정이 되었으며, 6월 신소재공동연구소 신설, 7월에는 반도체공동연구소 준공 등을 진행하면서 연구중심의 대학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 1989년에는 연구처가 법정기구로 출범하면서 국내 대학 최초의 학술연구지원 전담기구로 진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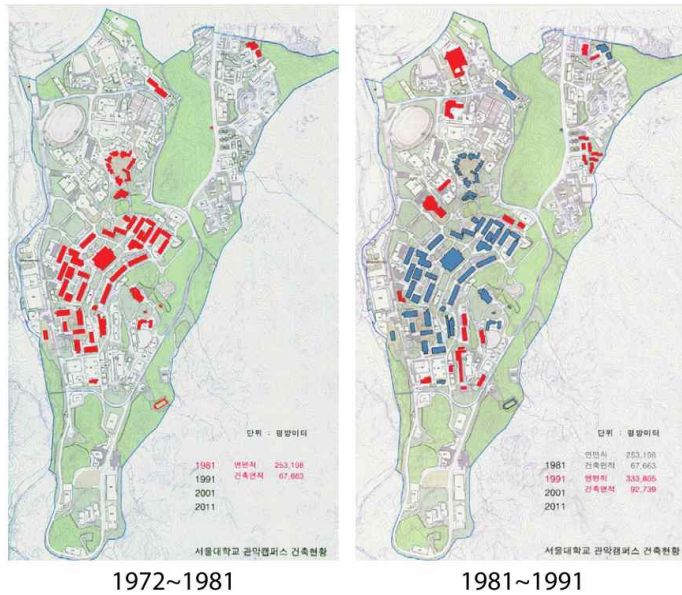
이처럼 서울대는 관악구로 이전한 1975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이나 적극적 협력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오히려 서울대학교는 1970년대 국가가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인력 개발을 위한 역할을 맡았으며 1980년대 또한 장기 발전을 계획하면서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며 엘리트들의 학문연마에 계속 치중하였다.

### 3) 대학의 지역 내 비공식 진출

#### 캠퍼스 내부: 캠퍼스의 내부충진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활발하게 요구되는 경우는 대학캠퍼스가 도시형 캠퍼스(urban campus)로 형성되어 주변 시가지와는 독립적으로 자리 잡은 교외형 캠퍼스(suburban campus)나 농촌형 캠퍼스(rural campus)와는 달리 시가지 속에 통합된 여건에 놓여있는 경우이다(한광야 외, 2005).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1910년대-60년대 기간 사대문 지역 주변이나 사대문 내 지대가 높은 구릉에 조성된 캠퍼스 초기 입지적 여건으로, 시가지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사회에 구릉 쪽으로 부지를 확보하여 주변의 지역사회와 도시 구역으로부터 독립적인 형태를 지닌다(여혜

진, 김광중 2008). 이러한 독립적 형태의 대학은 안산의 연세대학교, 관악산의 서울대학교, 매봉산의 서울시립학교, 남산의 동국대학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4-1] 관악캠퍼스 건축현황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출처: 서울대학교 7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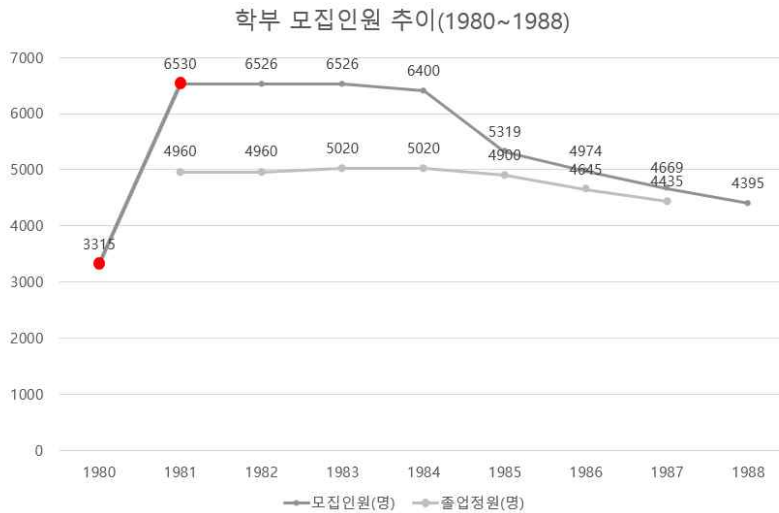
준공연도	동		면적	
	동수(동)	비율	연면적(m <sup>2</sup> )	비율
1982년 이전	49	22.5%	192,000	11.5%
1983년~1987년	14	6.4%	49,949	3.0%
1988년~1992년	14	6.4%	51,227	3.1%

[표 4-2] 관악캠퍼스 건립연도 현황- 1992년까지  
(출처: 서울대학교 시설과)

이 당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는 독립적 형태의 조건에서 캠퍼스 내부적으로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내부충진형 캠퍼스 확장이 진행되었다. 1980년 7월 25일 문교부는 대학학사운영정상화방안을 통해 교육개혁 조치를 진행했으며, 전일제수업, 졸업정원제 실시, 대입 본고사 폐지 등



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졸업정원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 대학의 입학정원 자체는 10만 5,000명이나 증원된 31만 1,000명이 되었다.<sup>13)</sup> 특히 서울대의 경우 전체증가율 60.28%을 훨씬 웃도는 96.9%를 증원하였다(서울대학교 개교 70년사, p.63). 이는 학내 인구밀도를 높이고 학내의 공간부족 문제가 야기되었다. 서울대학교는 대학 정원 증가로 인한 캠퍼스 공간부족 문제에 대해 캠퍼스 내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다. 서울대학교는 캠퍼스 내부확충을 통해 캠퍼스 부지를 새로 확충하지 않고 기존의 캠퍼스 범위 내에서 필요한 개발을 진행했다. 이 시기의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에서의 시설 확장은 지역 사회와 직접적인 연계는 없었다.



[그래프 4-1] 학부 모집인원 추이(1980~1988)  
(출처: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참조)

13) 졸업정원제의 경우 대학 입학의 문호가 확대되어 학생들이 경쟁구도 속에서 학점에만 신경 쓰도록, 탈정치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부작용을 이유로 1986년에 폐지가 되어 1988년부터 입학정원제로 대체되었다(서울대학교 개교 70년사).

관악캠퍼스의 건물은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관악구로 이전되었던 1970년대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다. 관악캠퍼스의 기본 골격이 되는 자연과학대, 인문대, 사범대, 음미대, 공대, 행정관, 학생회관, 도서관, 기숙사 구관은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지어졌다(캠퍼스 마스터플랜 2012-2016). 1980년대에는 기숙사 신관이 중공되었고 법학관, 문화관, 후생관, 체육관, 중앙전산원, 규장각이 준공되었다. 이 시기의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는 서울대학교의 전통적 대학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캠퍼스 내부의 확장을 택함으로써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우선시했다.



### 서울대 「아크로폴리스」광장을 장미밭으로

서울대는 학생들에 의해「아크로폴리스」광장이라 불려 오던 서울대 관악캠퍼스본부와 중앙도서관 건물 사이의 공터 장미밭에 1천여그루의 장미를 심고 학생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이 광장은 관악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대학의 심장」



인 도서관아래인 까닭에 학생들이 약속장소로, 때로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모임을 벌이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학교측은 이「아크로폴리스」광장에 장미를 심게된 것은「이미 계획된 조경사업에 따른것」이라고만 말하고 있다.

[사진 4-2] 1984년 아크로폴리스 광장  
(출처: 학생들이 만든 한국 현대사: 서울대 학생운동 70년 3권 자료집에 수록된 동아일보 1984.4.21. 기사)

또한, 10·26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하고 학생들은 학내 민주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캠퍼스 내부는 자주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의 장소가

되었다. 특히 집회와 시위의 주된 무대인 캠퍼스 내의 아크로폴리스는 골칫거리로 여겨졌고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장미나무를 심어 시위를 막았다(동아일보 1984.4.21.). 또한, 캠퍼스 곳곳에 경찰들과 형사들이 자리 잡고 있어 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진행하기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의 캠퍼스 내부 공간 사용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 캠퍼스 외부: 녹두거리

관악구의 경우 1963년 서울시에 편입되어 60년대 초 서울 도심 철거민의 집단이주 지역이었다. 이때 당시 관악구는 지리적 제약이 많아 산업이 활성화될 필수적 교통의 요충지나 논농사에 적합한 위치도 아니었다. 봉천동·신림동 일대 불량주택단지가 존재했으며 서울대 이주 전에는 철거민과 이재민의 집단이주와 함께 고지대의 하천변에 주택 밀집 군이 형성되었었다.<sup>14)</sup> 73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등포구에서 분리되어 ‘관악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서울대학교가 관악구로 이주하기 이전에는 서울대와 관악구 사이에는 주체적인 협력관계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관악구의 경우 서울대가 관악산 기슭으로 이주하면서 75년 신림-봉천동을 중심으로 약 8.6%였던 인구증가율이 76년에는 28%를 나타냈고 서울대학교의 관악구 이전이 관악구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인구 규모를 보자면 60년대 초 약 7천 명에 불과하던 인구가 73년 관악구 신설 당시에는 24만 명으로 증가했고 서울대가 이전한 75년에는 30만 인구, 80년에는 50만을 넘어섰다<sup>15)</sup>. 관악구의 인구증가는 서울대에 상당 부분

14) 강민정(2016), 관악구와 서울대, 40년의 동행을 돌아보다, <대학신문>.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58>

15) 「서울특별시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따라 1973년 7월 1일 영등포구 노량진동, 상도동, 상도1동, 봉천동, 본동, 흑석동, 동작동, 사당동, 대방동, 신대방동, 방배동, 신림동이 관악

의존했다.

시대적 배경에서 언급이 되었듯이 4·19 이후 대학과 사회에서 혁명의 주역은 대학생들이었다. 하지만, 대학이 국가관리 체제 아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이공계 중심으로 성장하는 길을 택하고 과학기술 인력 개발을 위한 대학 개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대학생들과 국가의 마찰이 빚어졌다. 기록에 따르면 1976년 2학기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대에서 점심시간이 사라졌고 학생 집회가 점심시간에 주로 열렸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조치라는 소문이 돌았다. 1979년 서울대학의 경우 종합화와 실험대학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학생운동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림 4-2]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녹두거리 위치  
(지도 출처: google earth 바탕으로 작성)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당시 서울대 학생들과 관악구는 공간을 매개로 서로 직접 협력하지는 않았지만 나름의 공생관계를 조성했

---

구로 분리되어 나왔다. 이후, 198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등 7개구 설치 및 구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노량진동, 상도제1동, 상도동, 본동, 흑석동, 대방동, 신대방동 일원과 동작동 및 사당동 중 일부(지금의 남현동 제외)를 분리, 동작구를 신설하고 방배동은 강남구로 편입이 된다.

다. 특히, 서울대학교 근처 관악구 신림9동 일대<sup>16)</sup>, 서울대에서 신림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는 주도로에서 왼쪽 주택가에 있는 이 당시 고시촌은 녹두거리라고 불리며 사범고시나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거주했었다. 고시촌들이 점령하기 이전부터 집성촌이 있었던 이곳은 서울이 급성장을 시작한 1960년대 후반 잇따른 개발 사업으로 도심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의 이주정착지가 되었고 1975년 서울대학교가 옮겨오고 나서는 대학생들의 하숙촌이 되기 시작하였으며, 당국의 강북개발억제책에 따라 고시학원들이 옮겨오고 고시 준비생들도 모여들면서 고시촌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sup>17)</sup> 녹두거리는 <녹두집>, <일미집>, <선비촌>, <탈>, <청벽>, <태백산맥>, <두레박> 등 신림 9동을 중심으로 한 학사주점 중 대표적인 녹두집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sup>18)</sup> <前夜>, <열린글방>, <그날이오면> 등의 사회과학서점들과 <아침이슬>이라는 커피숍, <베리>라 불리던 세미나 공간 등 상권들이 형성되었다. 실제로 대부분 서울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들로 이뤄진 곳으로 성격이 다른 상업공간들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사회과학서점들은 대학생들에게 이곳은 ‘공적인 소통 공간’(조형근 2007)으로서 역할 했다. 책을 구매하지 않아도 앉아서 책을 읽고 토론을 벌이고 친구를 사귀는 등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했다.<sup>19)</sup> 이처럼 대학캠퍼스 내에서 대학생들을 향한 감시와 통제가 심해지자 서울대 학생들은 관악구의 녹두거리 일대를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필요에 의한 공생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16) 2013년 행정명 변경으로 ‘신림 9동’이 아닌 ‘대학동’

17) 서울역사박물관, ‘신림동 청춘’ 특별전 2015.9.11.~2015.11.08

18) 조형근 (2007). 녹두거리와 녹두거리 아닌 것. 문화과학, 52, 364-376

19) 1980년, 이 당시 국민 정신교육 강화라는 명목으로 7:30교육개혁조치를 통해 공산주의·종속이론·네오마르크시즘 등 급진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연구 및 교육하는 것을 금하였다(서울대학교 개교 70년사).



[사진 4-3] 1993년 5월 10일 녹두거리 책방, 그날이 오면  
(출처: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김영과 하창현(2003)의 한국의 캠퍼스 주변 지역사회를 포함한 대학촌 조성 계획에 관한 연구는 캠퍼스계획 대상의 물리적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계획 대상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적 측면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당시의 학생들은 캠퍼스 내부보다 자유로운 영역을 원했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상권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업주들과 학생들 간의 이해관계 부합을 통해 공생관계가 유지되었다.<sup>20)</sup> 별다른 산업이 없던 관악구는 서울대 이전과 서울대 학생들의 활동 범위 확장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업이 발달해 전체 산업의 비중 중 90%를 차지(박동민 1997)했을 정도로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서울대에 의존했다. 즉, 서울대 학생들은 이 공간을 이용하여 동질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관악구는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시작했다.

<sup>20)</sup> 대학신문, 특별취재반, p.4. 녹두거리 정화, 총체적 학원개혁 차원에서 풀자, 1994년 5월 30일

#### 4) “사회봉사”의 시대

##### 야학

서울대학교가 관악구로 위치를 옮기기 이전과 옮긴 후 초반에 서울대와 관악구의 관계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상호작용이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서울대가 관악산 기슭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연관성밖에 없었다. 하지만 국가의 요구에 맞춰 개혁을 꾀하는 대학본부와는 다르게 서울대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지역사회의 문제를 마주했으며 대학의 봉사적 역할을 대표적으로 수행했다.

이 당시, 서울대 학생들 참여했던 봉사활동 중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참여하는 농촌봉사활동<sup>21)</sup>이 존재했다. 이념서클<sup>22)</sup>의 주된 활동 중 하나였지만, 많은 학생이 참가하여 인맥을 결속시키는 주된 행사 중 하나로 1976년에는 25개의 서클에서 총 700여 명이 농촌봉사활동을 할 정도로 대규모 연례행사였다. 이때 당시 농민들은 정신적 계몽이나 지도, 관계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숙원사업 해결, 자제들 교육 등을 바랐지만 서울대 학생들은 주로 농사관련 육체노동을 자청했다(신동호, 2013). 하지만, 농촌봉사활동의 경우 관악구와 연관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다.

농촌봉사활동과는 다르게 관악구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친 서울대학교 학생들 주도의 시혜적 봉사활동도 존재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야학을 통해 봉사에 참여했는데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전 73년도 대학신문에 실린 ‘大學生과 夜學’이라는 기사에서 야학을 가르치는 대학생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

21) ‘봉사’라는 시혜적-계몽적 의미를 제거한 ‘농촌활동’으로 일부 이념서클 내부에서 불리기도 했다(신동호, 2013).

22) 이념서클은 학술서클이라는 성격을 유지하면서 사회변혁과 저항운동을 위한 활동가 양성에 주력했다(신동호 2013).

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한국사회에서 야학은 민중을 자각시키는 애국계몽운동의 형태로 일제의 침략이 강화되던 1900년대 시작되었으며 해방 직후에는 도시 빈민이나 몰락 이농민들을 대상으로 지식 청년과 사회 사업가들에 의해 천막 학교의 형태로 진행이 되다 경제발전과정에서 파생된 도시빈민, 소외된 노동자, 농민의 자제 등을 대상으로 비정규교육기관으로서 검정고시 야학이 주를 이뤘다.<sup>23)</sup> 1970년대에는 크게 경찰서에서 직업소년들을 위해 운영하는 곳, 사회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 그리고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구분이 되었다. 그중 검정고시 야학이 가장 많았고 서울대 학생들은 난곡지역에서 탁아방과 야학을 열어 공부방 활동을 주도하거나 기존 야학에 참여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대 학생들은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밀려난 철거민들이 재정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빈곤지역의 쫓겨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야학을 시작했다(강민정, 2016). 77년 4월 18일 대학신문에 실린 기사에서는 학생의 대부분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강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검정고시를 목표로하더라도 실제 합격한 학생 중 진학을 실제 하는 학생은 20%밖에 되지 않았다. 집안 형편이나 상황상 중학교 진학을 못 해 야학에 왔는데 고등학교 진학은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24)</sup> 이에 따라 점점 민중의 구체적인 실체인 노동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80년대 당시에는 탁아방, 공부방, 어머니학교, 주거문제 해결<sup>25)</sup>을 위한 활동 등 빈곤층의 기초생활과 복지의 욕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주민운

23) 최연식, “夜學, 그 치열한 삶의 現場 - III. 夜學事例의 比較.”, <대학신문>. 1986.6.3.

24) “그늘속의 이들과 함께 - 夜學.”, <대학신문>, 1977.4.18.

25) 더 이음. [http://theconnect.or.kr/b/gr\\_case/145074](http://theconnect.or.kr/b/gr_case/145074)



동에 서울대 학생들이 참여한다. 야학의 진행과정 중 근로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실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야학의 성격이 단순 교육에서 토론형태의 인간관계와 노동현장, 가정의 문제에 대해 대화토론을 거쳐 사회속의 자기 위치를 발견하도록 이끌었다(최연식 1986). 대표적으로, 관악구 신림동에서 75년에 시작했던 남부야학은 ‘노동자 계층의 변혁’을 목표로 근로기준법 등을 다뤄 깨어있는 시각으로 사회를 보는 교육을 진행했다. 이 남부야학은 노동야학으로 검정고시에 치우쳐진 야학은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시작되었으며 시사, 상식, 역사, 철학, 노동법 해설 등이 중시되었다. 이후 남부야학은 남부교육센터와 난곡사랑의집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면서 도시형 대안학교나 공부방, 지역주민교실 등 다양한 교육 실험들을 진행해왔다.



[사진 4-4] 야학현장 이미지와 포스터  
(출처: 1977년 4월 18일 대학신문 ‘르브…夜學의 現場을 간다.’)

서울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야학의 경우 공개적이거나 개방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당시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야학의 경우에는 언론이나 외부로의 노출에 폐쇄적인 입장 때문에 외부에서 불안한 오해-야학의 학생들을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 당시 야학에 참여하고 있는 몇몇 학생들은 과시하거나 자기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신문 같은 곳에

미담(美談)처럼 학생들의 야학활동이 거론되고 그들의 활동을 미화(美化)시키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다고 답했다.<sup>26)</sup>

‘대학 사회봉사의 일차적 장소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Goddard 2000)라는 말처럼 서울대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마주하며 9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되는 대학이 주도하는 사회 봉사활동의 기초를 닦았다. 하지만, 특히 공공기관과 지자체단체는 대학의 역할을 활용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유기적인 관계도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당시 실제로 대학은 일종의 시혜자, 지역은 수혜자로 파악하는 협소한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안영진 2005, p.80).

---

26) “그들 속의 이들과 함께- 야학”, <대학신문>. 1977.04.18.

## 2. “기업가적” 대학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 1) 시대적 배경

전두환 정부에서도 실험대학 체제가 강요되었지만, 실험대학이 요구했던 대학개혁안은 대학의 주체적인 개혁 의지가 없었기에 실행되지 못했다. 1990년대 이후에 들어와 대학이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절박함에 마지못해 개혁에 나서면서 개혁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김정인 2018). 김영삼 정부 아래 5.31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시장 논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개혁을 압박해 왔고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는 IMF를 지나면서 국가가 대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계기가 된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자율화를 강조해서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제도의 자율화, 대학운영의 자율화 등에 영향을 주었다(김철 2006). 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고 자율화보다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식이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었다. 학생 수가 증가하고 고등교육이 대중화가 되었으며 대학이 경제적 원리에 따라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 대학이 안고 있는 과제를 성취하는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했다(김철 2006).

산업사회를 벗어나 지식과 정보사회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대학은 지식 및 혁신기술의 창출자이자 전파자로 확고하게 자리 잡으며 대학의 위상도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혁신기술의 창출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형성되었다(박영한 외. 2005).

## 2) 대학의 기업가적 역할

기업가적 대학은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활용에 대해서 정부와 산업의 성과나 기대가 커졌으며, 대학-산업-정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중요한 점은 대학에 대한 경제적 기대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혁을 이끌었으며 이는 대학 연구의 방향성에 대한 개입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끼쳤다. 대학들은 경쟁 속에 연구비를 확보하고 산학협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연구비 배분을 위해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등 산업기술과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정부가 지속해서 개입했다. 대학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는 1990년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을 요구하면서 실제 대학의 역할은 산업과 사회에 필요한 실용적 교육으로 옮겨갔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서 스스로 개혁에 나서본 적이 없는 대학들이 국가의 지원을 얻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일대를 정비하기 시작했다(김정인 2018).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학개혁 대신에 구조조정이 화두로 등장했고 대학은 지도력을 가진 주체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사 조율, 적극적인 재원 보충(이만우 1998)을 통하여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가적 대학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1998년에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00년에 국립대학 발전 계획을 내놓으면서 국립대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비록 성과는 미미했으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대학에 대한 국가의 책임론이 강하게 떠올랐고 실제 김영삼 정부 때의 교육부 학술 연구비 지원이 272억 원(1993년)에서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에 1,200억 원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

다(김정인 2018).

### 3) 대학과 지역의 공간적 갈등

#### 캠퍼스 내부: 무분별한 캠퍼스확장과 지역사회와의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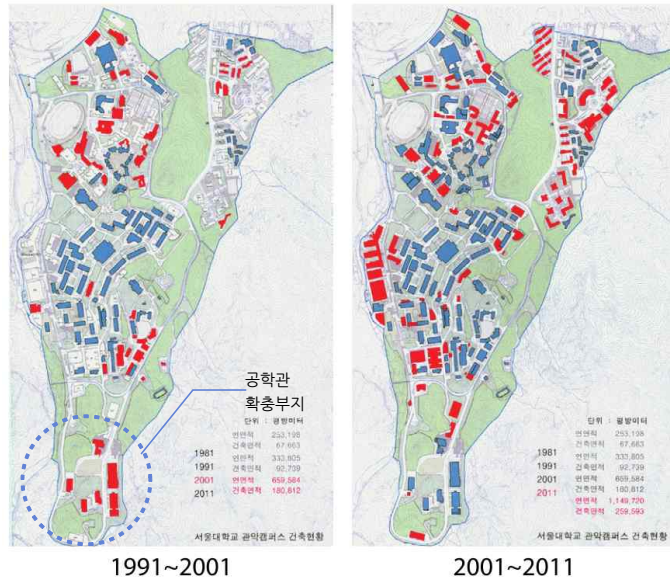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의 공간적 관계는 1980년대 캠퍼스 외부에서 처음 이뤄졌다. 고시촌을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공간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변 상업시설을 활성화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내부적인 확장은 지역사회와 별다른 공간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기업가적인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서울대학교 본부의 주도로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확장이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한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마찰(강민정, 2016)이 빚어졌다. 이를 계기로 대학 캠퍼스 자체가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준공연도	동		면적	
	동수(동)	비율	연면적(m2)	비율
1982년 이전	49	22.5%	192,000	11.5%
1983년~1987년	14	6.4%	49,949	3.0%
1988년~1992년	14	6.4%	51,227	3.1%
1993년~1997년	20	9.2 %	95,790	5.8%
1998년~2002년	29	13.3%	131,072	7.9%
2003년~2007년	50	22.9%	343,703	20.7%

[표 4-3] 관악캠퍼스 건립연도 현황- 2007년까지  
(자료: 서울대학교 시설과)

우선 초기의 캠퍼스계획은 캠퍼스를 주변 지역사회와는 별개의 공간으로 취급했으며 주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건축적 논의로 구성이 되었었다(여혜진 2006). 한국의 대학 캠퍼스계획에 관련된 연구는 1972년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마스터플랜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이뤄졌으나 캠퍼스계획의 공간체계, 동선계획, 토지이용은 캠퍼스 내부의 단지 계획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점차 대학의 역할의 범위가 커지고 캠퍼스가 물리적으로 확장<sup>27)</sup>되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변화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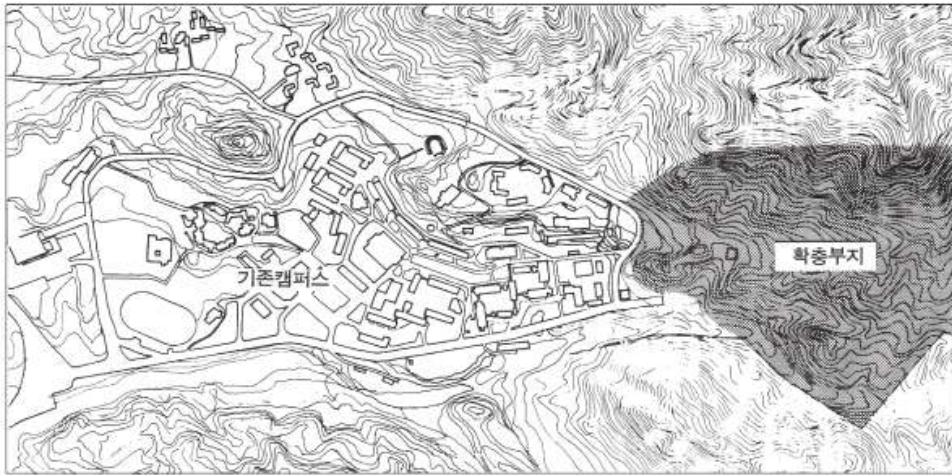


[그림 4-3] 관악캠퍼스 건축현황 1991부터 2011까지  
(출처: 서울대학교 70년사)

1992년도부터 고급 산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해서 공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면서 대학본부는 제2캠퍼스를 시급하게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학교 70년사). 신공학관 건립을 위한 계획은 1992년 10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통해서 발표되었는데 신축부지로 공과대학 남단의 관악산 자운암 아래 터가 선정되었다. 확충 시설은 교육연구시설, 연구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 등 세 가지로 제1공학관은 1996년에 준공이, 제2공학관은 2001년에 준공이 되었다. 1990년대 이후로 캠퍼스

27) 1980년대 이후 증원에 따른 캠퍼스 수용 인원의 증가가 캠퍼스의 물리적 시설 확충으로 이어졌다. (여혜진 2007, p.42.)

퍼스 내부의 건물이 급속도로 신축이 되었고 각 단과대학과 연구소의 건물 신축, 2000년대 BK21 대학원전용시설 구축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1975년 당시 캠퍼스를 조성할 때의 건설했던 건물의 면적만큼이나 1990년대에 신축되었다.



[그림 4-4] 공학관 확충 부지  
(출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시설확충 종합계획)

지역사회가 서울대학교의 내부적 캠퍼스확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때가 공대 신공학관인 301동이 준공되던 때이다. 도림천 모임(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의 유정희 창립대표는 2016년 3월 6일 자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301동의 외관이 지나치게 과해 관악산을 오르내리는 시민들에게 관악산 파괴에 대한 우려를 만들어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농생대 이전, 공대 신공학관을 이후로 미술관 건립문제에 관해 관악구민들의 반대여론이 형성(서울대학교 70년사)되기 시작하면서 서울대 내부의 문제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대학 스스로 자각하는 사건이 된다.



[사진 4-5] 다른 각도에서 보는 공대 301동  
 (출처: 왼쪽 <https://cse.snu.ac.kr/contact-us>, 오른쪽 <https://csap.snu.ac.kr/su17>)

이처럼 캠퍼스의 확장으로 지역사회와 잦은 마찰을 일으킨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미술관 건립에도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있었다. 설립계획 당시 관악캠퍼스 내에 급속하게 들어선 건물들로 인해 시민들에게 관악산 파괴에 대한 우려를 안겼고, 그 결과, 농생대 이전과 미술관 건립문제에 대해 관악구민들의 격렬한 반대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1998년 서울대학교가 건축협의를 신청하였으나 관악구청에서 산림 훼손을 이유로 기존 부지에서 북동쪽으로 40m 이상 위치를 변경하라는 조건을 걸었고 서울대학교는 이와 반대로 기존의 계획을 변경할 경우 산림 훼손 면적이 오히려 늘어나며 미술관 정문이 대학 내부로 들어올수록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약화된다는 점을 내세우며 공사를 강행했다(서울대학교 70년사, 유예림, 2000). 서울대학교는 공사를 강행했고 이에 대해 관악구청이 2000년 6월 17일 인가취소를 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 되었다. 결국, 부지를 22m가량 옮기는 선에서 관악구청과 타협하면서 기존의 설계가 바뀌게



되고 공사는 2005년에서야 완공되었다.

서울대의 경우, 캠퍼스의 확장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만한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자 폐쇄적인 캠퍼스계획에서 점차 지역사회적 논의로 변화해왔다. 이때 당시 사회대 강사였던 안영진(1997)이 남긴 대학신문의 글에서 그는 “관악산 한쪽으로 너른 터만 빌려 매일 산더미 같은 쓰레기나 배출하고 유동성 큰 구성원으로 교통혼잡을 발생시키는 등, 같이 몸담은 생활공간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곱지 않은 이기적 집단으로만 생각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대학의 사회 봉사적 기능을 강조했다. 대학이 지역 서비스에 힘써 지역사회의 발전잠재력을 키우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산학활동, 학교 시설물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국립대라 하여 지역사회와 연관이 없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각종 도시문제와 교통 불편을 일으켜 인프라 비용증가 등, 대학이 지역사회에 끼치는 문제들 때문이라도 더욱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이 당시 서울대학교의 경우 캠퍼스확장과 무분별한 개발로 지역사회의 반감을 사고 있는 점을 의식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 당시의 대학과 지역사회는 공공선의 역할을 맡아 주도적인 공간적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필요성에 주목하기보다 기업가적 대학으로서 이익추구자이자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인재양성의 역할에 더욱 관심(조영하 2010)을 두었다. 국가권력과 산업의 개입으로 대학에서는 더욱 캠퍼스 내부확장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환경문제와 난개발 등으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는 등 긍정적 관계보다는 부정적 공간 관계가 두드러졌으며 캠퍼스의 확장에 대한 대립관계를 형성하면서 공간적 협력관계는 이뤄지지 못했다. 기존의 녹두거리를 중심으로 학생과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만



로서 변해온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녹두거리라는 공간을 매개로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공간적인 연계를 지속한다고 보기 힘들어졌다.

#### 4) “지역운동”의 전개

##### 도림천 복개와 강남순환고속도로 반대

서울대학교의 캠퍼스확장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바탕으로 서울대와 관악구 지역사회가 나서면서 새로운 협력관계의 가능성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본부와 지자체단체는 소극적이었다. 대학생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환경문제에 참여했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대학본부가 강남순환고속도로 문제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공통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협력한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와 지역사회는 서로의 목적을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향후 우호적인 관계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서울대의 YMCA, 관악청년회, 환경운동연합, 자치를 향한 서울대 지역연대 등과 관악구의 도림천 살리기 시민연대는 도림천 복개공사를 반대하는 운동을 같이 진행했다. 도림천 상중 하류 3개의 수질 오염도를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류에 이룰수록 오염 정도가 심해진다는 점을 근거로 도림천 복개공사가 진행되면 빛과 산소 부족으로 도림천 내 생태계가 파괴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또한, 시민연대는 “도림천 생태조사에서 1급수의 지표종인 버들치가 다수 발견” 되었다는 점을 들면서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도림천을 복개하는 것을 반대했다.<sup>28)</sup> 시민연대는 1996년 11월 17일 관악산 입구에서 엽서 보내기, 서명운동 등을 통해 도

---

28) 대학신문 1997년 3월 17일, 도림천은 숨쉬고 싶다; 도림천 복개 공사 진행과 반대 운동

림천 복개공사 반대 캠페인을 열었다.<sup>29)</sup>

도림천 복개 반대운동의 경우 서울대 학생들과 시민이 주체였다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대학교 학생뿐 아니라 교수 및 본부 차원에서도 반대에 참여한 사례다. 2003년에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를 포함한 30여 개의 환경·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공동대책 위원회를 구성했다.<sup>30)</sup> 미술관 건립 등 캠퍼스 개발 문제로 관악구와 마찰을 보여온 서울대와 관악구민들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반대를 계기로 일시적이지만 협력관계를 형성했다.

사업단계	갈등주체	갈등원인과 내용	갈등해결방안
발의 및 계획	서울시 (-) 지역주민	- 지상건설시 분진 소음 발생 지역발전피해	- 협상노선 지회화
	서울시 (-) 과천시	- 소음 분진 피해 발생 - 통과노선을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변경요구 - 노선 지회화 요구	- 협상노선 지회화
	서울시 (-) 서울대학교	- 경관훼손 인조문제로 학교 정문 앞 고기건설 반대	- 협상노선 지회화
	서울시 (-) 공동대책위원회 (33개 단체)	- 환경훼손 심화 - 사업투명성결여 및 교통영향평가 부실	- 환경영향평가 재보완하여 요건 충족 - 공사시체에 대한 반대는 해소되지 못할
집행	서울시 (-) 과천시	- 공사 및 운영시 소음 - 구간 지회화 -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행 지연	- 협상노선 지회화 - 중재중앙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 금천구 (-) 지역주민	- 노선통과 공사구간 피해보상	- 보상·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유치
운영 및 관리	서울시 (-) 광명시	- 요금소 진출입로 소음 민원	- 진행중 해당 아파트 건설사업시 행사가 방음벽 설치 무담하는 것이 원칙

[표 4-4]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단계별 갈등내용

(출처: 박진경, 김상민 201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서울 남부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가 1994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2년 뒤인 2016년에야 개통<sup>31)</sup>이 되었다. 이 자동차전용도로는 서울 금천구에서 강남구 수서동을 잇는 총

29) 대학신문 1996년 11월 18일, '도림천 살리기 시민연대' 복개공사 반대 캠페인

30) 서울대저널, <http://www.snujn.com/news/1920>

31) 2016\_지방자치단체간 지역발전사업 갈등관리방안\_고속도로

22.9km의 도로로서 시민단체와 서울대의 반대로 인해 상당 기간 공사가 미뤄졌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반대는 고속도로를 건설했을 때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인근 주민들이 먼저 반대를 하기 시작했었다.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서울시는 99년 도로 노선을 도시외곽 쪽으로 우회해 안양천과 도림천, 관악산을 지나도록 변경했다. 이 결정을 계기로 반대하는 입장의 범위가 달라졌는데, 관악산과 우면산을 뚫고 지나는 터널에 대해 환경과피를 문제로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을 포함해 ‘녹색연합’, ‘서울대학생특별위원회’<sup>32)</sup>가 협력하여 반대운동을 벌였고 이후 ‘녹색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등이 합세해 반대운동을 이끌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대의 본래 입장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계획반대가 아니라, ‘서울대 앞의 고가도로 및 나들목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sup>33)</sup>이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계획된 위치의 인근 주민들과 같은 이유로 서울대도 주변 경관과 교통 혼잡, 소음, 매연 등이 학교의 교육이나 연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와 서울대가 계획 중이었던 정문 앞 부지 활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극히 대학의 이익에 중점을 둔 이유로 반대를 했다. 특히 낙성대 부근과 정문 부지 앞에 지으려고 계획한 사대부속고등학교와 연구소 건설에 차질이 생긴다는 의견<sup>34)</sup>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서울대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백지화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99년 이전 노선이나 지하화를 하는 방향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서울대의 제안을 서울시가 거부하자 서울대는 노선을 바꿔 도로 건설 전면 반대 입장으로 2003년도에 환경·시민단체, 주민, 학생들과 함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

32) 씨알, SAFE를 포함하는 학생 동아리

33) 서울대저널, <http://www.snujn.com/news/1920>

34) 2001년 11월 19일 대학신문,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와 관악 나들목, 무엇이 문제인가 이상화 기자

건설을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혼자 힘으로는 도로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니 전략적으로 관악구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에 협력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서울대저널에 실린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으며 그 상태로 서울대 혼자 도로 건설 전면 반대에 나설 수 없던 상황으로 반대 과정에서 학생, 주민, 환경단체의 반대 활동과 도로 건설 자체의 문제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 입장을 바꾼 것”이라는 당시 서울대 대책위 집행위원 김정욱 교수(환경대학원 대학원장)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서울대가 노선이 예정되어있는 녹지 8만 평을 1998년 대기업으로부터 후원받아 공동명의로 매입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당시 환경파괴를 오히려 부추긴다는 말도 나오는 상태였다.<sup>35)</sup>

서로 개인적인 이익을 바탕으로 이뤄진 일시적인 협력관계의 사례이지만 서울대가 공대위에 참여하여 일원으로서 반대운동을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관악구 주민들과 서울대 양측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서울대의 입장에서는 캠퍼스의 무분별한 확장 등으로 관악구 주민들에게 눈초리를 받는 상황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반대운동에 대한 참여는 일시적으로나마 서울대가 지역사회에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고 같이 더 넓은 범위에서 협력이 가능한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다는 바탕을 제공하였다.

---

35) 신림동 ‘서울대 고개’ 조우 산에 위치했고 당시 연구동을 포함, 장기발전계획 관련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일반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었다.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11127001219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0111270012191))

## 학생운동에서 지역운동

1990년대에 들어와 민주화와 대학의 자율화보다 대학본부가 기업가적인 대학으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산업과 정부로부터의 지원 확보에 치중하자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 또한 혁명의 주역에서 과학기술 발달에 이바지할 인력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김지인 2018). 이에 따라 당시 공간적으로는 서울대학교의 일방적인 확장으로 인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빚는 상황이었지만, 비공간적으로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지속 되었다.

학생운동 문화가 수그러들면서 녹두거리를 이끌었던 주체인 대학생들이 사라지고 외지인들이 유입되면서 각종 범죄와 조직폭력 관련 문제가 생겨났다. 학생운동 문화는 위축되었으나 학생들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관악사랑’이라는 자원봉사단이 학내 규찰과 질서, 치안 유지를 위해 1993년부터 시작<sup>36)</sup>되면서 학생들의 주도로 지역사회의 치안과 봉사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1993년 5월 10일 대학신문에서는 관악사랑의 발족식을 알리며 1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총 120명의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전했다. 학생들은 야간 학내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활동으로 시작해 점차 영역을 넓혀 봉천동에서 셔틀버스 탑승 질서유지 지도도 진행했다. 이 활동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어 경찰들과 함께 녹두거리 등을 순찰하는 자율적 규찰이 시작되었다.

이렇듯 서울대학교 본부보다 대학생들 차원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계속되었다. 97년도 대학신문에 올라온 대학과 지역사회 특집에서는 ‘사회운동에서 지역연계: 주민과의 지속적 접근으로 새로운 역할 모색’이라는 기사에서 공대 동아리 ‘우리자리’ 공부방 운영자와의 인

---

36) 주현희, "삶과 문화의 공간, "녹두"를 돌아보다", <대학신문>, 2012.05.11.

터뷰에서 학생은 “지역운동은 지역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 답하였다. 대학생들은 학생운동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실제 70~80년대 서울대 대학생들이 진행했던 야학과 같은 일방적인 봉사와는 다르게 조직적인 지역운동은 동아리 위주의 활동에서 지역사회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 이러한 조직적 봉사가 생겨났던 이유는 엘리트 집단임을 자처했던 학생사회에서 ‘민중’이 새로운 화두가 되며 민중 개념, 계급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sup>37)</sup> 캠퍼스 밖에서 마주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내부의 고찰도 포함되었다.

실제로 38대(1995) 총학생회가 지역문화운동으로 시작한 녹두문화제<sup>38)</sup>, 교육운동 및 지역운동으로서의 공부방 활동, 사회연수 프로그램으로 제시하는 [자치를 향한 서울대 지역연대]의 지역연수학교, 사범대 주최의 [열린교실] 등의 사업이 두드러진 지역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독자적인 활동을 했지만 [관악 주민연대]와 [관악청년회] 등 지역운동가들과 연대하여 함께 활동도 진행했으며, 97년 기준으로 봉천3동[꽃망울글방] 봉천5동[너른마당] 등 관악구 내 11개의 공부방이 운영되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봉사적 역할을 통해 대학을 사회의 중심기관으로써 정착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지역사회를 위한 일방적인 대학의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단체들과 연계를 시도했고 관악구 지역주민들에게는 서울대 학생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익을, 서울대 학생들에게는 관악구 지역이 행정구역을 넘어 서울대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뿌리내리는 장소의 기반이 되었다.

---

37) 서울대학교 개교 70년사 p. 43

38) 1994년에 진행했으나 총 2회를 끝으로 사라졌다(삶과 문화의 공간, "녹두"를 돌아보다, 대학신문, 2012.05.11.). 녹두문화제를 통해 도립천 살리기 운동도 함께 진행했다 ([https://www.snu.ac.kr/about/history/history\\_record?md=v&bbsidx=126989](https://www.snu.ac.kr/about/history/history_record?md=v&bbsidx=126989))



### 3. 변혁적 대학 (2000년대~현재)

#### 1) 시대적 배경

대학은 다양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대학의 목적과 효율성이 재검토되었다(안영진 2005). 인적자원과 기술혁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와 사회가 기대하는 대학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대학 개혁의 요구가 거세졌다. 국가와 사회는 대학을 통한 경제발전에 주목했고 대학 또한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한 캠퍼스 경계부 및 캠퍼스 내부의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논의가 형성되었다. 특히 서울대의 경우 관악캠퍼스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90년대 이후 들어선 각종 단과대학 부속시설들과 지원시설들에 대한 우려와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의견이 팽배했고 대학과 지역사회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협의와 갈등을 거쳐오면서 대학과 지역사회는 피할 수 없는 관계라는 시각이 자리 잡은 것이다.

이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대학의 통폐합, 정원 감축, 교육과정의 혁신, 기업가적 대학운영 등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학령인구 감소, 산업과 노동구조의 변화, 고령화 사회, 지식과 정보의 증가, 국가 간의 교류 등으로 대학들이 경쟁체제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또다시 대학의 경쟁력과 혁신 잠재력의 제고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학이 자리 잡은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높아졌다(안영진 2005).

1990년대에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미 대학을 지역사회 재생을 견인할 주체의 관점에서 대학을 보기 시작한 것처럼 한국도 기존의 대학의 역할에서 대학의 일방적인 봉사형태가 아닌 지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2002년 12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조성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와 자치구 및 지역주민 공람의 절차가 제도화되면서 대학이 지역사회와의 합의 없이 독단적인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대학캠퍼스 내 개발주체가 대학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공적 계획과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13)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와 대학이 파트너십을 통해 저출산이나 고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활성화에 대학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 서울시의 경우 캠퍼스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종합적 지역재생을 추진하는 지역창조형 지원과 단위사업 중심인 프로그램형 지원 등으로 2025년까지 총 1,5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김태현·이태희 2017). 또한 <대학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대학의 공간과 시설이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관리한다. 이처럼 국가, 지역사회, 대학은 공통적인 도시문제를 통해서 협력적인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도시를 재활성화 시키는데 힘쓰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기존 대학의 일방적인 봉사에서 갈등관계를 거쳐 상생을 위한 관계의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2011년 7.4%에서 2018

년 9.5%로 상승<sup>39)</sup>했고 확장실업률<sup>40)</sup>은 2020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5.6%로 집계되면서 일자리 부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도 대학에 재학할 수 있는 인구를 가리키는 학령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학령기 인구감소는 대학의 재적인원 감소로 이어지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의 재정 악화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대학과 지역사회는 도시문제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 2) 대학의 역할

변혁적 대학의 개념은 단순히 대학의 기본적 역할에서 벗어나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익이 되어야 하며, 공공영역의 확장과 평등 사회 진흥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Guzmán-Valenzuela, 2016).

미국의 경우,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 계기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도시계획과 공공정책의 과정에 시민 참여가 도입된 이후부터(1960년대)이며 대학의 캠퍼스계획에서 지역사회가 캠퍼스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계획의 요소로 등장했기 때문이다(여혜진 2006).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과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계획과정의 이해당사자가 재구성되었고 1990년대 중반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engagement)가 재조명되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

---

3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40) 기존 실업률 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를 따르는데 (1)지난 1주일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2)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3)지난 4주간 구직활동 수행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로 취업 준비생이라고 생각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통계에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확장실업률은 실제와 체감을 좁히기 위한 '고용보조지표'로서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이하이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실업자 범주에 포함하며, 구직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경제활동인구'(예를 들어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도 포함된다.

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장되었다.

한국 또한 빠르게 일궈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면에는 심각한 질적 문제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대학은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과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할 것이 요구되었다(박영한 외, 2005). 기존 교육과 연구에만 중심을 두었던 대학은 지역과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열린 대학으로서 행동하기 시작하며, 대학-지역사회는 필요에 의한 협력관계에서 공동목표 추진단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는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과 기업가적 역할을 거쳐 변혁적 대학(Transformativ University)로 그 역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2015년에 진행된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은 공간과 시설, 경제적 자원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동시에 교육, 연구, 봉사의 사회적 임무를 가지고 설립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 과정에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대학의 자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학과 지역사회 내부에서 활발해졌다.

### 3) 대학과 지역의 공간적 협력

#### 대학 시설과 공간개방

대학의 지속적인 확장은 도시에 새로운 갈등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존재했고 이로 인해 대학의 자문, 평생 또는 계속 교육, 각종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대학이 지역사회에 더욱 많은 것을 이전해야 한다(박영한 2005; 33)는 시각이 생겨났다. 서울대는 보유한 대학시설 지원들을 일반에게 개방하면서, 그중에서도 관악구민에게 추가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평생학습 연계로 관악구의 예산지원을 받아 2007년도부터 박물관, 미술

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교양강연, 청소년들을 위한 수업과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이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전시와 전시물 안내를 통해 시민과 청소년에게 사회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표 5-15] 관악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서울대 학관협력사업 내용**

운영	사업명	운영기간	대상	주요내용	시작연도
규장각	금요 시민강좌	연중 2회 (3개월 과정)	역사·문화에 관심 있는 성인(200명)	고문서 등을 활용한 한국학 이해	2010.3
미술관	현대문화 예술강좌	연중 2회 (3개월 과정)	현대미술에 관심 있는 성인(200명)	현대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2007.3
박물관	수요 교양강좌	3월~6월	문화유산에 관심 있는 성인(200명)	세계문화유산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의 이해	2012.3
관악구 평생 학습관	관악 시민대학	연중 2회 (4개월 과정)	관악구 거주 성인 (150명)	평생학습 지원 및 민주시민 양성	2005.6
	관악 시민대학원	연중 2회 (5개월 과정)	관악구 거주 성인 (80명)	평생학습 지원 및 민주시민 양성	2005.11
	시민대학 최고위 과정	연중 1회 (4개월 과정)	시민대학원 수료생	시민대학원생 요청에 의해 개강	2015.5

**[표 4-5] 관악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서울대 학관협력 사업 내용 (출처: 서울연구원-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2015)**

도서관의 경우 일반인(만19세 이상)에게도 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sup>41)</sup> 도서관의 경우, 일반열람실의 절반을 중고등학생을 제외한 외부인(회원)에게 개방하고 있다.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수목원도 유,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sup>42)</sup> 박물관, 규장각, 수목원은 무료로 개방하는 상황이다(2020년 기준). 규장각의 경우도 단순히 시설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시민강좌를 진행하는데 서울대는 2008년부터 관악구 평생학습관과 협력해오고 있다. 관악구의 예산으로 강좌가 운영되며 1년에 두 번 역사

41) 관악구민은 연회비 8만원 일반인은 연회비 12만원을 지불 후 이용이 가능하고 일일 출입증을 받아 출입이 가능하지만 대출은 불가하다.

42) 미술관의 경우 일반인 3000원, 이외 2000원의 관람료를 받고 개방하고 있는데, 관악구 지역 주민의 경우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림 2-10. 용도별 시설배치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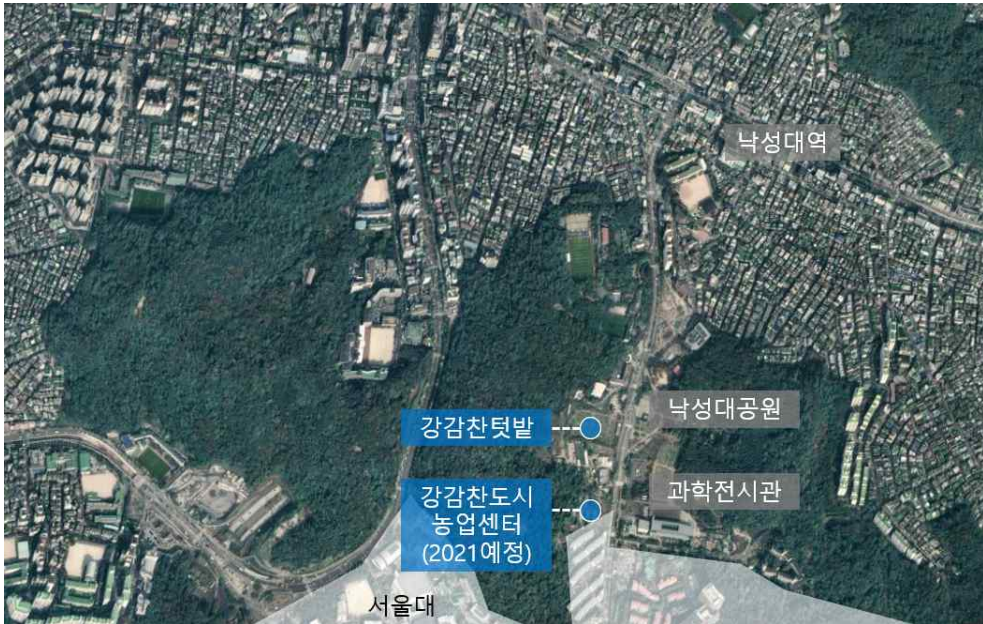
〈그림 4-6〉 문화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개방  
(출처: 캠퍼스마스터플랜 2012-2016)

와 문화에 대한 강좌를 개최한다. 미술관도 관악구 평생학습관을 주관으로 현대문화예술강좌를 진행하며 120명 정원 중 관악구민 90명, 타지역민 3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강좌를 제공한다. 박물관의 경우 수요 교양강좌를 진행하는데 1995년부터 서울대박물관은 학생, 교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요일마다 강좌를 개설하여 고고학, 민속학, 미술사, 인류학, 자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학기마다 매주 수요일 열리고 있다. 64동에 SNU Hall에서는 사전에 신청한 단체들이 캠퍼스 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 텃밭사업

2016년에는 관악구가 진행하는 마을 텃밭 사업에 서울대가 서울대부지를 제공하였다. 서울대 사회공헌단과 업무협약을 맺은 관악구는 ‘도시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텃밭을 계획한 것이다.



[그림 4-8] 강감찬 텃밭 위치  
(출처: Google earth)

관악구는 서울대를 설득하여 서울대 부지 1만 7백여 제곱미터와 과학전시관 부지 1천 5백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서울대 부지의 경우 봉천동 259-1번지 일대로 2019년 4월까지 3년간 사용 이후 토지사용 연장을 협의할 것으로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서울대 부지는 강감찬 텃밭으로 명칭을 정했고 2인 이상 가족 단위나 3인 이상의 단체를 우선 분양하였고 서울대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텃밭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서울대와 협력하여 세계에서 최초로 나노기술을 적용하여 작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재배하는 리얼스마트팜 ‘관악도시농업연구소’<sup>43)</sup>를 운영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이 직접 기술을 체험하고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농작물을 기부했었다.

43) <https://www.asiae.co.kr/article/2018041606572712064>,

학생사회공헌단은 관악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함께 텃밭을 가꾸면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텃밭 공간을 매개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는 학교의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프로그램과 수업을 진행하여 시민교육과 커뮤니티 문화형성에 도움을 주었다. 현재(2020년 11월 기준)는 관악구가 주도적으로 2021년 관악구 낙성대동에 관악 도시농업 복합시설인 ‘강감찬 도시농업센터’를 확정지었다.

### 2008년: UniverCity



〈그림 4-7〉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 이미지  
(출처: 관악, 지역발전 장기플랜 발표, 서울신문 12면, 2008.08.21)

2000년대 이후, 서울대와 관악구는 단순히 캠퍼스 개방을 통해 공간적 협력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계와 비공간적 관계의 틀을 넘어서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하면서 공간적 계획과 소프트웨어적인 계획을 합친 종합적인 서울대-관악구 협력계획을 추진했다.

관악구가 2008년 8월 20일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을 통해서 서



울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연구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관악저널 2008.9.1, 대학신문 2008.8.30.). 이는 관악구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의뢰한 학술용역으로 처음으로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2020년까지 계획된 장기 계획이기도 했다. 서울대학교의 인적자원과 시설을 활용하는 협력관계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우선 <그림 4-7>에서 보여주듯이 경전철 신림선·서부선과 강남순환도로가 만나는 서울대 정문 앞에 환승센터, 지하공간에는 연구단지과 컨벤션, 상업, 문화시설을, 그리고 지상에는 산책로를 계획했다. 서울대입구 근처의 여관촌을 정비해서 문화와 예술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고 낙성대공원 옆 과학전시관 자리에 대학연구 특구인 R&D센터를 형성하기로 계획했다. 장기계획으로서 2020년까지 최소 2,6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서울대의 장기발전계획과 캠퍼스계획과도 연동되어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의 경우 관악구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상생을 위한 지역발전 장기계획의 시작이라는 것에는 의의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못했다.

서울대의 경우, 동참 의지는 있었지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서울대학교가 이 당시 ‘멀티캠퍼스’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 당시에 수원 광고지역에 경기도로부터 1,400여억 원을 지원받아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신축하였으며, 평창에는 그린 바이오 과학연구단지, 인천 청라지구에는 카이스트와 ‘국제과학복합연구단지 포트’를 조성할 계획이었다(snu 소식, 2007.08.09.). 관악산에 위치하는 서울대학교는 캠퍼스확장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고 실제 토지이용계획 아래 가용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관악구 내부보다 인센티브나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멀티캠퍼스에 더 관심이 치중되어 있

던 상황이었다. 결국, 서울대학의 입장에서는 관악구와의 협력을 통해 늘어나는 공간적 수요를 일정 부분 충족 할 수 있다는 것 이외에 적극적으로 관악구와의 장기계획을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

관악구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대의 시설과 인적자원을 필요로 했고 서울대 또한 공간확보와 대학의 성장을 위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해지면서 상생적 계획을 마련하려는 노력은 결국 현실적인 조건에 부딪혀 실행되지는 못했다.

### **2009년: 에듀 밸리 사업(Edu-Valley)**

대표적인 지역사회 확장형 캠퍼스 조성사업 계획으로 시작한 에듀 밸리는 관악캠퍼스 인근의 낙성대 지역과 정문 인접부지를 대상으로 한 ‘서울대학교 Edu-Valley 조성사업’라 불리우며 2009년부터 관악구가 진행하던 ‘관악 Edu-Valley 2020’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주축이 되어 기획과 실행에 관여했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서울대학교 본부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이었다. 우선 관악구가 200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함께하여 멘토링, 영재교육원, 시민대학 등 일련의 관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2009년 서울대학교와 관악구가 협력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Edu-Valley 조성사업으로 확대되었다(김동일 외. 2007).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문화, 예술의 발전을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했다.

2009년에 발간된 서울대학교 「Edu-Valley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지리적으로 고립된 관악캠퍼스의 문제를 해결하여 문화적, 공간적으로 통합된 대학도시 조성으로 관악구와 서울대의 동반적인 발전 계획이었다. 서울대학교는 부족한 캠퍼스의 교지를 확

충하고 지역사회의 위상을 높이려는 계획으로 총 650,000m<sup>2</sup> 부지에 학술 교류분야 시설로는 컨벤션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연구기술분야 시설로는 국제산학연구단지, 생명공학연구단지, 치의학대학원 첨단교육연구 복합단지, 교수학생복지분야 시설로는 교직원아파트와 기숙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는 서울대학교 부속병원과 사범대학부설 중·고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획을 위해 낙성대 지역과 정문 부근의 공원시설부지 중 약 380,000m<sup>2</sup>를 학교시설로 변경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가 대체 공원 부지로 제시한 곳의 위치는 기존 낙성대 공원에 비해 너무 먼 곳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 **2011년: SNU-Valley 사업**

2011년에는 기존 계획을 대폭 수정한 ‘서울대학교 SNU-Valley 사업’ 계획이 새로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녹지훼손 면적과 공원시설부지 사용 면적을 최소화하여 낙성대 지역과 연구공원 부근에 융복합 연구단지, 외국인교수 및 교직원 숙소, 학생 기숙사, 제2사대부고를 설치하고, 정문 앞 공원부지에 SNU Medical Valley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서울대학교는 서울시와의 협의와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했지만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후 2016년 4월 26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서울대-서울시 서밋 및 협약식’에서 낙성대동의 서울과학전시관과 관악캠퍼스 내 연구공원을 연계한 ‘낙성대밸리’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 **2016년: 낙성대 벤처 밸리 사업**

낙성대 일대 R&D 벤처밸리 육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업의 목적은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관악벤처밸리로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화와 서울대의 우수한 인력과 연구기술을 활용한 벤처기업 창업 집적지구로 육성함으로써 관악구 및 서울 경제 활성화에 있다. 2012년에는 서울대 연구공원 2배 확장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었으며 같은 해 5월 관악구와 서울대는 업무협약 체결을 하고 낙성대 일대 벤처 집적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6년 4월 서울시에 건의하여 낙성대 일대 벤처밸리 촉진지구를 육성하고자 했다. 2016년, 서울대가 서울과학전시관과 연구공원을 합친 '낙성대 밸리'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캠퍼스를 산학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려는 작업을 착수한다. 융복합이 특징인 4차산업 경쟁에 대비하려면 대학과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위한 물리적 제약부터 없애야 한다는 판단에서다.<sup>4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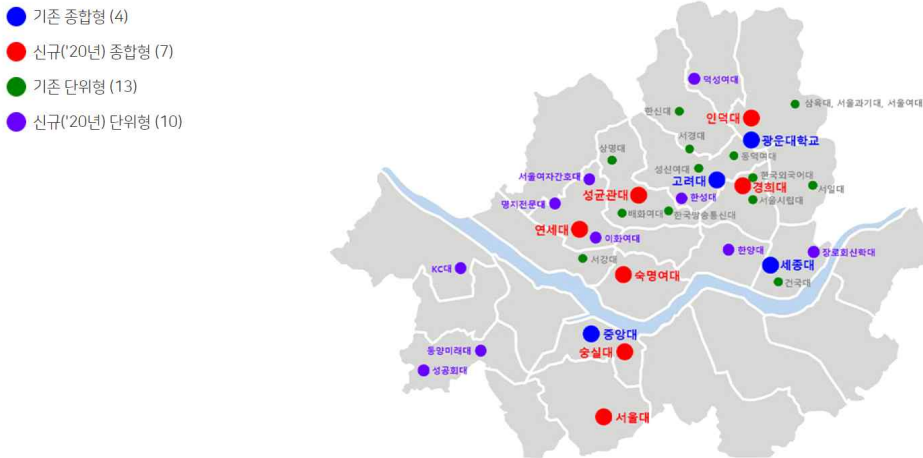
낙성대동 서울과학전시관 부지에 조성하여 창업 보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2016년 4월 26일 '서울시-서울대 서밋'에서 서울시장과 서울대 총장이 참여하여 낙성대 밸리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18년 4월에는 서울대학교와 관악구가 낙성벤처밸리 페스티벌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관악구는 특히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는데,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일하고 창업하는 벤처창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여 간 낙성벤처창업센터, 낙성대 R&D 센터, 서울창업카페 낙성대점 등 창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다.

### 캠퍼스타운 사업

캠퍼스타운 사업은 2013년 서울시에서 수립한 “지역과 상생하는 대

---

44) 황정환, 박동휘, 강경민(2016), “서울대 '낙성대 밸리' 구축...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운다”, <한국경제>, 2016.04.26. A8면.



[그림 4-9] 캠퍼스타운 현황

(출처: [https://campustown.seoul.go.kr/site/main/content/sct050\\_010\\_10#none](https://campustown.seoul.go.kr/site/main/content/sct050_010_10#none))

학자 조성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학의 장소적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실현하고자 했다(추현수 외, 2019). 하지만 실제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적용하기에는 도시관리계획은 기존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관리기법이기 때문에 실행력에 한계가 있는 점과 주민참여가 강조되는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캠퍼스타운 사업’정책이 수립되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시설을 개방하고 상호협력하기 시작하면서 상생을 위해 실천적 대안을 만드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고 대표적인 예로 서울대학교와 관악구가 참여하는 캠퍼스타운을 들 수 있다. 2018년 시행된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sup>45)</sup>에 따르면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이란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학의 인적·물적·지적 자원과 공공의 지원 및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대학과 그 인근지역을 청년이 머무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45) 2018년 1월 4일 시행된 서울특별시조례 제6777호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말한다. 여기에 대학제안사업<sup>46)</sup>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종합형 사업’으로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하여 주거·문화·상권·지역협력의 종합적인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단위형 사업’으로 대학별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청년활동 증진을 위한 단위프로그램 사업이다. 이러한 캠퍼스타운의 주 목적은 크게 청년문제 해소와 도시의 활력 증진으로 볼 수 있는데 캠퍼스타운 전략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3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른 생활권계획과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초기 캠퍼스타운의 예: 녹두.zip

서울대와 지역사회는 녹두거리를 매개로 상생했으나 90년대에 들어와 점차 유대관계가 희미해지면서 관악구청이 나서서 2011년에 서울대와 협력을 약속하면서 복지, 문화 등 여러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서울대는 녹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대 캠퍼스 녹두.zip을 설치했으며 이는 2016년 서울시가 추진을 시작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도시재생 모델 중 하나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서울대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받아 2017년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표방하면서 옛 광장서적 건물에 ‘녹두.zip’을 열었다. 창업팀, 특강, 멘토링 프로그램, 법률 자문 등 다양한 창업 지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간을 개방한다. 지역주민들은 중고거래 서비스, 이사 물품 대여, 재활용품 종량제 봉

---

46)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학제안사업”이란 대학과 서울시에 소재하는 자치구(이하“자치구”라 한다)가 공동으로 제안한 다음 각 목의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중 시장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투 교환 서비스, 환경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일일장터, 전통매듭만들기 등의 클래스가 진행되었다.



[그림 4-10] 녹두.zip 위치 (신림로 117)  
(출처: Google earth)

하지만, 지역주민들 대부분 녹두.zip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조차도 정보가 없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대학신문과의 인터뷰(2019년 3월 17일)<sup>47)</sup>를 진행한 전국원룸협회 회장을 맡았던 정성호씨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과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언급했던 것으로 보아 접근성이나 홍보의 방향이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또한, 학교 측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자체의 협력확대가 기대될 만큼,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난다. 서울대와 관악구가 각자 운영하는 창업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녹두.zip이 만들어지면서 협력관계를 형

47) 강동완 기자, 2019.3.17 함께 갑시다, 녹두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8>

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파트너십의 관계까지는 형성하지는 못한 채 2019년 12월 31일 사업 종료되었다.

### 서울대학교 OSCAR 관악 캠퍼스타운

종합형과 단위형<sup>48)</sup> 캠퍼스타운으로 이뤄진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관악구와 서울대는 ‘2020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종합형 사업’에 최종 선발이 되었으며 ‘서울대학교 OSCAR 관악 캠퍼스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추진을 진행 중이다. OSCAR는 ‘Open, Share, Collaboration, Activation, Reproduction’의 약어로 서울대 인근 대학동과 낙성대동에 거점을 마련하고 서울대의 창업 인프라 및 기술력과 인력을 활용한 창업과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sup>49)</sup>



[그림 4-11] 서울대 OSCAR 캠퍼스타운 사업 프로세스  
(출처: 서울캠퍼스타운)

현재 서울대학교가 캠퍼스타운 사업단을 전담 조직으로 구축하여 사

48) 종합형 캠퍼스타운은 현재(2020년 기준), 총 11개로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상권·지역협력의 종합적인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 대학별 4년간 100억이 지원되며 단위형 캠퍼스타운은 총 23개로 대학별 특성·역량을 바탕으로 청년활동 증진을 위한 단위프로그램 사업, 대학별 3년간 6~30억을 지원한다.

49)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2/1095312/>



업을 수행하고 있다. 캠퍼스타운 사업단은 창업 전문가로 인력을 구성하여 청년과 지역의 문제를 창업으로 해결하고자 사업단과 파트너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창업 클러스터가 목표이다. 현재 창업팀은 19개로 헬스케어 4팀, IT 4팀, 연구 3팀, ICT 2팀, 서비스, 모바일 app, 제조업, 기타 각각 1팀씩 총 19개의 창업팀이 활동 중이다. 2020년 9월부터 낙성대동 거점센터(창업HERE-RO2)와 대학동 거점센터(창업HERE-RO4)가 입주했으며 낙성대동과 대학동에 각 1개씩 거점센터(창업HERE-RO1, 창업HERE-RO3)가 추가로 오픈될 예정이다. 김태완 서울대 캠퍼스타운 사업단장에 의하면 센터 구축에 있어 관악구와 서울대 대학본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성사되었다.<sup>50)</sup>

기존 대학-지역사회 연계 사업은 두 조직을 연계하여 사업을 전담할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종종 있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서 대학총장과 자치구청장이 사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거나 지정하여 캠퍼스타운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대학교-관악구의 경우는 서울대학교가 캠퍼스타운 사업단을 전담 조직하였으며 이 조직을 구축으로 서울대 OSCAR 캠퍼스타운 사업을 수행 중이다. 위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민-관-학 통합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효율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지속가능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집중한다.

특히 창업육성뿐 아니라 지역상생을 위해 지역상인 지원 프로그램 차 상인대학,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연계수업, 지역주민과 서울대가

---

50) 이승재 기자, 김태완 서울대 캠퍼스타운사업단장 “글로벌 경쟁력 키워, 10년 내 유니콘 기업 10개 발굴해 낼 것”, 환경 잡앤조이, 2020.10.13.  
([http://jobnjoy.com/portal/job/special\\_view.jsp?nidx=429926&depth1=1&depth2=3&depth3=1](http://jobnjoy.com/portal/job/special_view.jsp?nidx=429926&depth1=1&depth2=3&depth3=1))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김태완 사업단장에 의하면 상권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커뮤니티 활동, 지역연계 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권 활성화의 경우 서울대 컨설팅 전문동아리인 ‘티움’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권 분석 전문가를 연계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지역 소상공인 커뮤니티를 위한 소통 공간이 2021년 상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거점센터 건립 등을 위한 재원 차원에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20억 원, 2023년까지 최대 100억 원의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별도로 2020년 관악구청 50억 원, 서울대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 4) “동반성장”의 시동

변혁적 대학의 패러다임 속에서 서울대학교도 학생들이 주도하던 봉사활동에서 대학 본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획하는 협력의 체계를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동반성장”을 위한 기틀을 잡고 있다. 단기적인 봉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에 서울대학교와 관악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장기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이나 공동목표를 달성하면서 사회적 자산을 구축하고 있다.

#### 교육-인적교류

기존의 대학은 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및 기초기술을 제공하는 영역에만 머물렀었다. 하지만, 지식, 정보사회에서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해야 했기에 기업은 창의력과 혁신기술 개발의 잠재력을 지닌 대학에 적극적으로 투자 및 접근하기 시작했다. 기업은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비, 각종 연구시설 투자비용을 부담하고 대학은 연구성과와 혁신기술을 제공하

는 방식을 통해 대학과 기업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박영한 외, 2005). 대학은 기업가적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절대 지식 창출에서 멀어졌지 않고 경제 주체자인 기업에 직접 응용기술을 확산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에 이르러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면서 국가경쟁력에 혁신기술 창출이 필수라 보고 산학협동 관련법, 기술이전 촉진법, 벤처기업육성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과 기업의 협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조영하 2008).

그렇다면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는 2000년대에 대학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와 어떠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가? 우선 2000년대 초반,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입은 새롭고 창의적인 지식을 창출하여야 하는 지식 경쟁시대를 맞이했다. 지식사회에서는 필요로 하는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은 전통적인 교육과 연구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동 역할을 하는 연구공원 창업보육 센터를 들여다보면 2001년 기준, 입주업체들은 교수 창업형, 교수-경영인 결합형, 졸업생 창업형, 일시 입주형, 관계 전문형(박영한 외, 2005)으로 나누어졌는데, 지역사회와 직접 연관되는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즉, 이 당시의 서울대학교 연구공원에서 직접적인 산학협력의 경우 지역 산업이 포함되었다기 보기 어렵다.

서울대학교는 관악구와 산업연관 협력을 펼치기보다는 단과대학과 본교 차원에서 관악구민을 교육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평생교육 및 시민교육에 관한 협력에 힘썼다.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진행한 [대학-지역 협력모델 개발 연구]에 의하면 서울대와 관악구 협력사업은 단과대학 차원에서 많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는 또한 2004년 10월 28일 관악문화회관에서 제2호 과학문화도시를 선포하였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선정하여 구내 생활과학교실과 청소년과학탐구반을 개설하여 주로 주부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상대적으로 과학 문화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이처럼 관악구 지자체는 주민들을 교육하고 주민들의 학습을 통해 삶의 질과 도시의 활성화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중심의 평생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또한, 서울대도 사회교육 활동의 필요성을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평균수명 증가와 고도의 기술발전,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으로 성인들의 재교육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식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통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관악구와 서울대학교는 대학의 지적 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자 2005년부터 현재까지 관악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관악시민대학은 관악구와 서울대가 연계하여 관악구민이 참여하는 민·관·학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다. 1년을 2학기로 나눠 운영하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저녁에 진행된다. 강좌를 수강하는 주민들은 일정 금액의 수강료를 납부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운영비용으로 모자라 나머지는 구청의 예산지원으로 유지된다. 주로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들이 직접 강의하는데, 교수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의 의미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관악구청 담당자와 교수들은 다른 대외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수준의 금액으로 수업준비에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기에 봉사의 일환으로 참여한다.

2007년 법 개정으로 평생교육법이 교육기본법에 속하게 되면서, 서울대학교는 2010년 5월 평생교육원을 개원하여 전문과정과 교양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문과정으로는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온라인 부모교육과정, 안보최고경영자과정, 유아교육 최고위 과정, 고령사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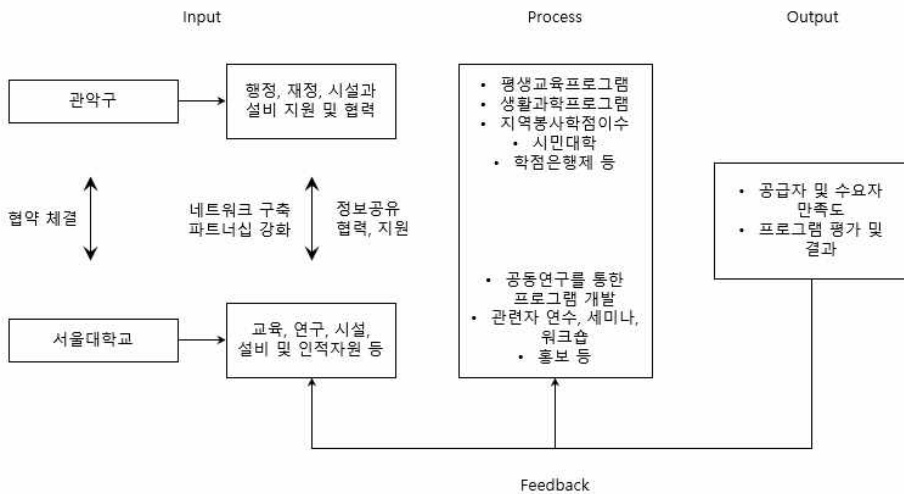
단과대학	주요사업	프로그램 예
생활과학대학 건강가정지원센터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005년 7월 개소. 교수진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가족 단위 복지증진, 가정의례 가정봉사원 제도, 가족부양 지원사업 등	가족강화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떠나는 “민머루 갯벌 체험” 서울서포터즈 자전거 체험
사범대학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관광부와 체육과학연구소의 위탁을 받아 운영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육원원수원	학교경영과 지역교육을 선도할 지도성과 교육에 대한 전문적 안목을 겸비한 교육지도자의 양성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과학공공기기센터	외부 사용자가 전체 사용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연구 및 교육 자원기관의 역할	첨단 연구기기 지원, 연구기기 사용 교육 지원
농업생명과학대학 창업보육센터	농생명과학 분야의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 지원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 실험 기자재 및 장비, 실험 공간제공	

[표 4-6] 단과대학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출처: 교육인적자원부\_대학-지역 협력모델 개발 연구 (2007) 참조.)

웰다잉교육 전문가과정, 한-중 비즈니스 전략과정 등이 존재하며 전문과정은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교양과정으로는 시민교양과정 등, 그리고 기획과정으로는 미술대학 예술교양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 개별 단과대학들과 전문대학원도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단과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 명칭에는 ‘최고’, ‘지도자’, ‘경영자’, ‘정책’ 등의 단어가 들어간다.<sup>51)</sup> 대부분 국가기관이나 기업의 현직 고위관계자나 경영자가 참여하는데 친목모임 형식으로 발전이되지 지속적인 모임을 하는 경우도 많으며 전문지식이나 사유방식 등을 전달한다.

51) 서울대학사 70년사

동작교육청 및 관악구청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관악구 내 저소득층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하며 인성 특기 문화와 관련된 멘토링을 실시한다. 대학생들은 청소년 상담전문가들의 자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대에서는 SAM<sup>52)</sup> 외에도 서울대 멘토링, 새싹 멘토링, 장학생 봉사 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들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12] 관악구와 서울대의 협력체제 모형  
 대학과 지역사회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관악구 보고서 p.114 참고. 2006

특히, 2020년 COVID19의 영향으로 지역사회와 대학 연계의 봉사에 서 도시문제 대응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의 여파로 어려워진 멘토링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서울대학교와 관악구는 갑작스럽

52) 관악구와 서울대학교가 학·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SAM 멘토링은 2006년부터 관악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비전코칭, 학습권설팅, 마음상담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왔으며,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교육 참여자들의 사회적 책무 실현을 지원한다 (SAM멘토링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관악구와 함께 운영을 맡고 있다.

게 생긴 도시문제를 함께 대응하고 있다. 팬더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멘토링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특히 청소년을 (SAM)위한 멘토링을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기존에 진행해왔던 대면 멘토링과는 달리 비대면 멘토링은 화상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하며 SAM 멘토링의 경우 2020년 9~12월까지 진행된다(관악구청 보도자료). 이처럼 서울대학교와 관악구가 도시문제에 협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자리잡혀가고 있다([그림 4-11] 참고).

## V. 결론

### 1. 협력관계 진화과정 내용 요약

대학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역할을 확장해왔고 그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또한 진화해 왔다. 대학의 역할이 변함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바뀌어 왔고, 그에 따라 대학이 위치하는 도시에 대한 영향력 또한 확장된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도시와의 협력 관계없이 발전해온 선진국의 대학은 없었다. 한국 또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장치가 아닌 지역사회와 대학이 주체적으로 협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의 캠퍼스 형성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관계 변화를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크게 3단계로 정의된 대학의 역할 변화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확인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진화하는 과정을 대학의 역할 변화에 따라 서울대학교와 관악구를 사례로 들여다본다. 기존 대학-지역사회 관계에 관한 연구들과는 다르게 대학의 역할 변화에 따른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 진화과정을 파악하고 대학-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이끈 대학과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이룬 공간적, 비공간적 관계를 통해서 서울대-관악구 관계 진화과정의 특징과 도시계획적 함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서울대학교가 관악산 기슭에 종합캠퍼스를 이전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의 역할은 지식인 교육에 있었다. 관악구와의 상호작용은 언급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으며, 서울대학교는 오롯이 교육과 연구를 최우선시하였다. 교육과 연구에 충실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캠퍼스의 내부에서 건물을 신설하였다.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공간적인 교류가 형성되기보다 서울대학교는 독립적인 형태의 캠퍼스를 유지했다. 하지만, 캠퍼스 내부가 확충되어도 학생들이 원하는 공간은 부족했고 학생들의 교내



시위를 막는 정권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 혹은 대학의 주도도 아닌, 캠퍼스 외부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적 활동 범위를 확장하여 관악구 녹두거리에서 동질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그 주변의 상업시설과 자영업자들이 학생들과 공간을 형성해 나가면서 상생하여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관악구의 관계가 한층 확장되었다.

서울대학교가 교육과 연구 등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만 수행할 당시, 지역사회와 비공간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계기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일방적인 시혜적 봉사라고 볼 수 있다. 경제발전과정에서 과생된 도시빈민과 소외된 노동자, 가정 형편 등의 이유로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면서 대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마주했다. 비공간적인 관계 또한, 캠퍼스 외부에서 발생했던 공간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주도했으며 이 당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의 학생들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지자체단체와 대학본부는 상호관계 형성에 서로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대학들은 국가의 지원을 얻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이익을 위한 기업가적인 대학의 역할을 시행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학은 지도력을 통하여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업가적 대학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서울대는 적극적으로 본부의 주도 아래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확장을 진행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캠퍼스는 내부적으로 확장했고 캠퍼스 경계 부근을 확장하는 등, 연구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몰입했다. 이로 인해 환경파괴를 문제로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켰으며, 이 과정을 통해 캠퍼스확장과 같은 계획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반면에 혁명의 상징이었던 학생들의 사회적 위치가 다소 위축되었다. 대학본부 주도의 캠퍼스 내부확장이 급속

도로 이뤄지면서 학생들을 다시 캠퍼스 내부로 집중시켰고 결국 캠퍼스 외부적으로 기존에 학생들이 형성해놓은 녹두거리 커뮤니티는 사회적인 변화에 그 역할을 잃었다.

하지만, 대학의 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내부의 고찰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학생들과 지역사회 일부 단체가 협력하여 지역봉사운동을 광범위하게 진행하였다. 도림천 복개와 강남순환고속도로 반대 운동의 경우, 서울대학교 학생뿐 아니라 교수와 본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관계가 더욱 대두되었다.

		1975~1990년대	1990년대	2000년대~현재
<b>시대적 특징</b>		근대화와 민주화 학생들의 자치적 활동 국가의 대학개혁 압력	신자유주의, IMF 등 국가의 대학 책임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도시문제 공유
<b>대학의 역할</b>		전통적 대학 (교육, 연구, 봉사)	기업가적 대학 (국가+기업+대학)	변혁적 대학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b>공간적 관계</b>	<b>캠퍼스내부</b>	부분적 캠퍼스 내부충진	캠퍼스 내부충진형 확장과 경계지역 확장, 개발가능지 감소 지역사회와의 공간적 갈등	캠퍼스 공간개방을 통한 공간적 협력
	<b>캠퍼스외부</b>	학생 커뮤니티 공간확장 (녹두거리) 지역 내 비공식 진출	학생 커뮤니티 지역 축소	캠퍼스타운, 벤처밸리 등 지역사회와 파트너십 형성
<b>비공간적 관계</b>		학생주도의 일방적인 시혜적 봉사	도림천, 강남순환고속도로 반대운동을 통한 일시적 협력관계	교육-인적교류 및 도시문제 대응으로 확장

[표 5-1] 서울대학교의 역할 변화와 대학-지역사회의 협력관계 진화

2000년대에 들어와 대학은 지역사회의 발전 동력이 될 것을 요구받는 동시에 도시문제를 공유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학과 지역사회는 도시와 대학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목표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단계를 실행하고 있다. 캠퍼스 내부에서는

캠퍼스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며, 텃밭부지를 제공하여 지역주민과 대학의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캠퍼스 외부에서는 서울시 도시재생 모델 중 하나인 캠퍼스타운에 서울대-관악구가 협력해 참여하며, 사업을 위해 서울대학교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더욱 효율적인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시도한다.

서울대학교와 관악구의 비공간적 협력관계의 경우, 고령화 인구, 급속한 산업구조 재편 등의 이유로 성인들의 교육 필요성을 느낀 서울대와 관악구가 평생교육, 문화시설 연계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협력사업 시도를 통해 지역에 인재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제공과 기업들을 유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캠퍼스타운과 같은 프로젝트와 도시재생과 연관되어 단순히 공간적, 비공간적 협력관계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처럼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라 서울대와 관악구는 독립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파트너십의 관계에 다다랐다.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 아래 학생들이 주도하던 시혜적 봉사활동 단계에서 서울대학교 본부와 지자체가 개입하는 협력적 단계로 변화하면서 협력을 주도하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주체도 바뀌었다.

## 2. 도시계획적 합의

서울대학교와 관악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본 연구에서 서울대와 관악구의 경우 공간적으로는 공간적 생산단계와 갈등을 거쳐 협력의 단계에 와있으며, 비공간적으로는 대학의 시혜적인 봉사단계에서 지역운동을 거쳐 동반성장을 계획하는 단계에 다다랐다. 이는 도시계획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1970년대에는 대학본부보다 대학생들이 먼저 도시환경에 기여하는 지역사회와의 공간적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이다. 기존 대학과 지역사회의 논의들은 대학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대한 논의로 이뤄져 있다. 서울대학교는 관악구로 이전한 이후 관악구 지역사회와 별도의 관계를 구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캠퍼스 내부에서만 확장을 진행할 동안 대학생들이 캠퍼스 외부 공간에서 고유의 커뮤니티 형성했으며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마주하며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다졌다. 이러한 학생들의 주도는 이 당시 학생들의 위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악구 지역사회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도시환경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서울대와 관악구 지역사회는 공유하고 있는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목표하기 이전에 둘 사이의 공간적 갈등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맺었다. 지역사회는 서울대가 관악구에 위치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이 있었지만, 대학생 인구증가와 대학캠퍼스의 확장으로 인해 교통, 소음, 환경문제 등이 생겨나면서 공동체 질서의 혼란이 생겨났다. 서울대 또한 캠퍼스 경계의 확장이나 건물 신설 등이 주민단체나 구청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서구의 대학들이 지역과 빚어지는 지속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을 지역사회화함(정기오 2006; 328)으로써 극복해온 것처럼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진행했다. 시대적 상황에 맞춰 대학은 공공성과 지역사회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는 변혁적 대학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학교시설과 부지 개방, 지역사회와의 교육 프로그램 진행, 도시재생 계획 등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완화하려는 방법의 하나로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켰다.

셋째, 국가가 지역사회와 대학의 협력을 도시발전의 동력으로 보기

시작하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할수록, 협력을 이끄는 대학의 주체는 학생에서 대학본부로, 지역사회는 주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본부의 차원에서 중요해지고 프로젝트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져 도시계획적인 사업으로 확장될수록 학생과 주민이 계획과정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지역기반 비영리단체에 사회재단이나 민간기업재단들이 지원금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영향력을 행사한다(김지은 2010). 하지만, 한국의 경우 시민단체들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캠퍼스타운 계획 또한 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는 부족한 상황이다. 캠퍼스타운 중 하나였던 녹두.zip는 홍보와 운영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서울대학교-관악구 간 협력관계에서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여 주체의 다양성을 유도하는 계획과정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넷째, 캠퍼스타운과 같은 장기적 협력계획의 주도는 대학과 지역사회가 아닌 정부 차원의 유도정책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조는 재정적인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배구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우윤석 외, 2009), 이는 대학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대학교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과 대학운영 등 상당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왔으며, 2011년부터는 국립대학 법인<sup>53)</sup>으로 전환하면서 대학의 자치적인 운영을 목표로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현재 전체 세입 총괄에

53) 국립대학 법인은 국립대로서 정부의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학교 운영의 기반이 될만한 제도로서의 정비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다.

서 2019년도 정부출연금 보다 1%가 더 상승한 56%를 정부에서 조달받는 상황<sup>54)</sup>에서 지역사회와 대학의 장기적 협력사업을 정부차원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교(김지은 2010)와 일본의 요코하마시립대학교(이태희 2016)의 경우도 중앙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증진 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차원에서 유도정책과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결정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전통적 대학과 기업가적 대학 역할의 시기에 도 서울대학교는 지역사회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대학본부 차원에서의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형성은 막 시작한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지역사회와의 안정적인 협력을 위한 요소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원 아래 대학의 본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창업을 위한 공간제공을 주도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통한 상생이라는 공통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대학-지역사회 협력계획을 실행하려면 사람과 대학,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sup>55)</sup>을 통한 신뢰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울대와 관악구의 경우, 교육교류 이외에 문화교류를 위한 장기적인 협력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캠퍼스타운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으로 지역주민과 서울대가 함께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이 있으나, 녹두zip의 경우처럼 단기적인 문화교육강좌로 끝나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은 창조와 혁신을 통한 문화의 생산과 전파를 근본적인 존재의 이유로 삼는

54) 2020년도 법인회계 세입 세출 예산 현황

55) 정기오(2006) 대학이란 무엇인가 도시와 타운으로서의 대학론 p.329

공간(전상인 2014)이라고 보았을 때 서울대와 관악구는 물리적인 공간계획이나 창업지원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문화 및 역사적 차원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관악구는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관광사업추진단’과 함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관악, 민주주의의 길을 걷다’, ‘관악 민주 올레’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박종철 거리가 조성 중이고, 박종철 기념관도 곧 건립될 예정이다. 일부 주민들은 박종철 열사를 기리며 고시촌에 ‘박종철역’ 신설<sup>56)</sup>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만의 노력으로는 사업이 흐지부지되거나 지나치게 상업화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민주화의 역사를 녹두와 연계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만들자는 제안이 생겨나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 또한 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으며, 2019년 10월 관악문화재단과 MOU를 맺으면서 관악구의 문화예술진흥과 지역공헌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기로 하면서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문화교류와 협력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의 도시개발로 불리는 도시 중심의 지역개발 체제가 그러했듯이 물리적인 공간제공 차원에 머무르거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협력관계가 벤처와 창업 지원에만 집중될 우려가 있기에 서울대가 동참해 관악구와 문화적 협력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서울대의 경우 오히려 전통적 대학의 역할일 당시가 지금의 변혁적 대학이 추구하는 자발적 공공성에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현재의 경우 서울대는 법인화된 대학으로서 여전히 대학이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며 관악구 차원에서도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 창업에 치중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문화보존이나 시민들과의 연계, 대학생들의 참여는 1980년대 당시보다 훨씬 저조한 상태이

---

56)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8>(대학신문 2019.03.17)

다. 대학생들에게는 학점인정과 같은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참여는 여전히 저조하며, 이는 더이상 학생들이 학생들 주도의 민주화나 사회비판적 저항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있지 않음을 대변하기도 한다. 리빙랩이나 강좌개설, 법률검토 멘토링 등이 시민들을 위해 진행된다고는 하나 대체로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그것으로 끝나는 수준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타운 또한 강좌와 프로그램 진행에 머무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계획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가 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는 반대로 외국의 경우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세고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참여의 범위가 넓은 것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사업에 다양한 주체 형성에 도움이 된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말하고 있지만, 주체는 결국 대학본부와 관악구청으로 한정되어지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주를 이루는 학생과 주민의 주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을 위하는 계획에 공공이 주체로 참여하지 않는 아이러니는 현재 공공계획의 한계를 보여준다.

### 3.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본 연구는 서울대-관악구 사례조사 방법을 통해서 2차 자료,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 서울대와 관악구와 관련된 기사, 마스터플랜과 서울대학교사, 정부 보고서와 통계자료, 서울대-관악구 협력사업 및 갈등 사례 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과 서울대학교와 관악구, 단일 사례에만 집중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용자나 관계자들을 통한 일차적인 정보 파악 정도에 그치고 인터뷰를 통한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수 없었다는 점 또한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향후 서울에 있는 타대학들과 그 대학이 위치하는 지역사회와의 협



협력관계 진화를 체계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 서울에 있는 대학들과 지역을 바탕으로 대학의 역할 변화마다 지역사회와 대학의 공간적, 비공간적 관계 진화와 각 대학과 지역이 지닌 공간적, 비공간적 협력관계의 장단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면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적인 협력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서울에 위치한 도시형 대학들과 지방의 대학들의 지역사회와 관계 형성과 진화과정을 비교해보는 것도 대학-지역사회 협력관계 지원정책이나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김성부 외(2008). “지역주민의 대학시설 이용현황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 김이수(2016), “메타분석을 활용한 지역과 대학간 협력에 관한 연구 -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vol. 30, no. 1, 2016, pp. 115 - 143.
- 김은정 외(2020),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콜렉티브 임팩트 접근에서 대학의 역할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vol. 22, no. 1, 2020, pp. 1 - 22.
- 김지은(2010), “대학-지역사회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재생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vol. 11, no. 3, 2010, pp. 69 - 86.
- 김동일 외.(2007), “대학-지역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 김영희(2007), “대학의 유형별 기원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36), 215-276.
- 김철 (2006). “대학이념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21세기 대학이념에 관한 고찰.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2), 25-46.
- 김태현·이태희(2017), “서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실태와 증진방안”, 「정책리포트」, 228, 1-19.
- 김한곤(1993), 김한곤. (1993). 대학과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 사회·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새마을지 역개발연구」, 14: 233-243.
- 민철구·송완흡·박상완(2003). “대학의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혁신”. 정책연구, 1-325.
- 박영한·조영국·안영진(2005), 「대학과 지역발전 : 이론과 실제」, 파주:한울.
-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2017). 「유니버 시티 :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 Univer City」, 포스텍 박태준미래전략연구소 엮음.
- 박한규 (2016). 21세기 새로운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OUGHTOPIA, 31(2),

- 박훈(2015), “국내 수도권 대학캠퍼스 확장을 위한 전략 연구”. 「교육시설 논문지」, 22(1), 25-36.
- 신동호(2013), “특집 1 :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학생운동연구 ; 긴급조치 9호 시기 학생운동의 구조와 전개 -서울대 이념서클과 서클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vol. 29, 2013, p. 6.
- 신진영, 이종호(2017),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표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 23, no. 3, 2017, pp. 437 - 449.
- 안영진(2005), “대학과 지역 간의 교류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8(1), 73-92
- 여혜진(2007), “대학-지역사회간 협력적 파트너쉽 연구: 한국과 미국의 캠퍼스계획 사례비교”, 박사논문.
- 양승실·이정민. (2005). 한국 대학의 지역협력 현황과 그 유형화 가능성 탐색. 「교육행정학연구」, 23(4): 299-320.
- 양정운·백승훈·윤기찬(2010),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2010, 1.
- 이만우(1998), 대학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교육, 1998년 9,10월호, 17쪽.
- 이종호·이철우(2015), 클러스터의 동태적 진화와 대학의 역할: 케임브리지 클러스터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3), 489-502.
- 이태희·박소은·김태현(2016), “일본의 대학-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51(1), 57-75.
- 오성삼(2001), 「세계대학의 이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우윤석, 조덕호, 안병도, 조성호 (2009). 주제 2 :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쟁점과 국토도시계획적 함의. 도시정보(329), 17-29
- 윤정일 외(2006), 관악구 대학과 지역사회간 협력체제 구축방안, 서울특별시 관악구.
- 장후은, 이종호(2017),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의 역할 제고 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 23, no. 3, 2017, pp. 459 - 469.

- 조영하(2008),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역할에 관한 연구: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협력 관점에서의 이해, *The Journal Korean Education*, 35, 191-92.
- 정기오(2006), 「대학이란 무엇인가 도시와 타운으로서의 대학론」,  
과주:한국학술정보(주).
- 조영하(2010), 21세기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8, No. 1, pp. 1~30.
- 조형근(2007). 녹두거리와 녹두거리 아닌 것. *문화과학*, 52, 364-376.
- 전병혜(2019),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상생협력 가능성의 영향요인 및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5), 139-160.
- 차하순(1996), 현대 한국대학의 성장과 문제점 한국사 시민강좌 18
- 한광야 외(2005), 대학캠퍼스의 성장과 경계확장에 관한 연구, 도시 설계  
제6권제2호, 한국도시설계학회
- 한광야(2017), 「대학과 도시」, 한울아카데미: 한울엠플러스.
- 한상훈(2004),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지역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영남지역발전연구, vol. 28, 2001, p. 129.
- 허준(2020), 「대학의 과거와 미래」,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David C. Perry and Wim Wiewel ed. (2015) 「*The University as Urban Developer: Case Studies and Analysis*」, Taylor and Francis.
- Etzkowitz, H., 2000, The future of the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the future: Evolution of ivory tower to entrepreneurial paradigm, *Research Policy*, 29(2), 313 - 330.
- Gregory Trencher, Masaru Yarime, Kes B. McCormick, Christopher N. H. Doll, Steven B. Kraines(2014), Beyond the third mission: Exploring the emerging university function of co-creation for sustainability, *Science and Public Policy*, Volume 41, Issue 2, Pages 151 - 179, <https://doi.org/10.1093/scipol/sct044>
- Goddard, J.(1997). *Universities and Regional Development: An Overview*. A

Background Paper to OECD Project on the Response of Higher Education to Regional Needs. Unpublished Document.

Goddard, J. & Chatterton, P.(2003). The Response of Universities to Regional Needs. In Economic Geography of higher Education: knowledge, Infrastructure and Learning Regions, coedited by F. Boekema, E.Kuypers, & R. Rutten, Routledge, London.

Guzmán-Valenzuela, C., 2016, Unfolding the meaning of public(s) in universities: toward the transformative university, Higher Education, 71(5), 667 - 679.

Jongbloed, B., 2008, Indicators for mapping university-regional interactions, Paper for the ENID-PRIME Indicators Conference in Oslo, May, 26-28.

Punch, K. F. (2005), Introduction to social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2nd ed.).

Thomas, Nancy L. (2000), "The College and University as Citizen."  
Thomas Ehrlich, ed. Civic Responsibility and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p.64-97.

#### 자료

교육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대학혁신 지원 방안」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50년사, 60년사, 70년사

서울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2012-2016)

서울대학교, Edu valley 기본계획 보고서 2009

서울대학교, 통계연보 2019

서울대학교 웹사이트

#### 신문기사

강민정(2016), "관악구와 서울대, 40년의 동행을 돌아보다", <대학신문>,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658>

안영진(1997), “대학과 지역사회, 대학은 지역에 바탕한 결정체로 이해해야”,  
 <대학신문>, 1997.11.24., 7면

이무용(1996), 녹두거리 공간문화분석, 저항 이미지 퇴색속 공간 파편화,  
 <대학신문>

서울대 이전연기, <중앙일보> 1974.01.18., 7면

홍승면 “서울 大學校論”,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1967.

최연식, “夜學, 그 치열한 삶의 現場 - III. 夜學事例의 比較.”, 1986.6.3.,  
 <대학신문>.

“그늘속의 이들과 함께 - 야학”, <대학신문>. 1977.04.18.

“퇴폐와 폭력으로 녹두거리가 멍들다.” <대학신문>.1994년

유예림, 부지선정문제로 미술관 건립지연, <대학신문> 2000.6.5.

박동민, “관악캠퍼스 이전과 함께 인구 급격히 증가, <대학신문>, 1997

주현희, “삶과 문화의 공간, “녹두”를 돌아보다“, <대학신문>, 2012.05.11.

황정환, 박동휘, 강경민(2016), :”서울대 ‘낙성대 벨리’ 구축…한국판  
 실리콘벨리로 키운다“, <한국경제>, 2016.04.26. A8면.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관악사랑] 오늘 발족., 1993.

동아일보 1984.4.21.학생들이 만든 한국 현대사: 서울대 학생운동 70년

## Abstract

# A study on the Evolution of University–City Relations: The case of SNU and Gwanak–gu

RYU Moon You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niversiti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structure of cities and communiti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related to University–City relations, the types of their relations are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campus expansion, urban regeneration, opening school facilities, sharing education, and more. However, since existing only studies focus on specific types of relationships, when it comes to the evolution of University–City relation, we face insufficient amount of understanding. Thus, it become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universities’ roles and how the relations between universities and cities changed over time to find out implications on urban planning.

This study is based on the belief that the University–City relations evolved and changed by changes of universities’ role over time. Tak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wanak–gu as a case, the 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the subjects that form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are identified in this study.

First of all, it starts with understanding the history of universities and cities, and then going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role of universities. Later, through the analysis of case study of SNU and Gwanak–gu, the urban planning implications of the 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ies and cities are examined.

The analytical scope is formed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on evolution of university roles and re–constructed for Korean universities’ time frame. It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which are ‘Traditional University’(1970s to early 1990s), ‘Entrepreneur University’(1990s), and ‘Transformative University’(after 2000). These three periods are analyzed into ‘spatial’ relations and ‘non–spatial’ relations, and the ‘spatial’ relations between SNU and Gwanak–gu is sub–categorized into inner and outer space of Gwanak Campus.

As a result, the urban planning implications of the evolu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NU and Gwanak–gu are followings. First, in 1970s, university students had formed spatial relationships with local communities that contributed to the urban environment. Second, SNU headquarter and Gwanak–gu Office originally began to form a cooperative relationship to resolve the spatial conflict. Third, as cooperation between them was emphasized, the subject of the university moved from students to the university headquarter, and the local community moved from residents or civic groups to local government. And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is accelerated by the government-level induction policy. Fourth, there are lack of long-term cultural exchanges or other kinds of cooperations, because the recent cooperative relationship is only focused on business oriented cooperations such as start-ups or ventures. This potentially disturbs diversifying th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Fifth, in the case of SNU, the role of a 'Traditional University' was more similar to the type of cooperation that the 'Transformative University' pursues.

**keywords : University, City, SNU, Gwanak-gu, cooperation, collaboration**

***Student Number* : 2019-26145**